

하나님의 말씀

골고다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8789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	5
하나님을 믿는 믿음.....	8
2739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믿음.....	8
8289 하나님은 자신의 아주 큰 사랑을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	9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죄.....	12
8672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인.....	12
8921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에 대한 질문.....	14
원죄의 결과 - 깨달음과 사랑의 힘의 상실.....	16
6765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무지와 같다.....	16
8929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한 결과이다.....	17
5423 합법적인 귀환. 이 땅의 과정.....	18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0
8504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20
7484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함.....	21
5192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23
예수의 고난과 죽음.....	25
7056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25
5643 고난의 금요일. 골고다를 향한 길.....	26
8791 수난의 금요일.....	27
5932 십자가의 죽음.....	29
7758 십자가 상의 주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30
7764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31
8201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33
7668 다 이루었다.....	34
죄의 속죄와 죄사함.....	37
6605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행한 속죄.....	37
8349 예수의 피를 통해 죄짐을 해결.....	38
예수 그리스도 - 죽음의 정복자.....	41
2331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다. 묶임을 받은 존재.....	41
4614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극복.....	4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일.....	44

7762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44
8468	예수님만이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다.....	45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48
6994	사랑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48
7950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49
1434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51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	53
8280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는가.....	53
8866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 마지막 믿음의 결정.....	54
3642	혼의 성장에 구속역사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일.....	56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골고다로 향하는 길.....	57
6512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57
7717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58
인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60
9010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60
5428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1
7660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62
3335	죄의 짐. 용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64
4166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65
예수를 따르는	일은 인내하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는 일.....	67
1806	인내와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	67
5791	갈보리로 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일.....	68
6562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는 일.....	69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	71
7773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71
4051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두 나에게 오라.”.....	72
8139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72
저세상으로	가는 문을 연 예수 그리스도.....	74
6850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74
7925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	75
저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77
7288	깊은 곳에서 얻는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지식.....	77

7404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78
7839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79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는 일.....	82
2101 구속역사의 은혜.....	82
3445 “나를 믿는 사람은...” 구속역사의 은혜.....	84
6383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85
이 땅의 삶 과제.....	87
6958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87
6701 사랑과 고난은 성장을 위한 도구.....	88
7313 모든 영을 향한 생각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8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91
584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91
6168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줄어드는 고난.....	92
6098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93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도.....	95
6374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95
7197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의 제공.....	96
7284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97
6827 원수에 대항하는 더 강력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98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100
3787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구속역사.....	100
4012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101
3623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102
7649 예수의 구속 사역은 일회적인 역사이다.....	102
6938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헛되게 드러진 것이 되지 않게 하라.....	104
6579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106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

B.D. No. 8789

1964년 3월 24일

그의 혼이 항상 아직 전적으로 영화 되지 못한 물질적인 겉형체에 거하는 동안에는 아주 희귀하게 사람들이 가장 깊은 영적인 지식에 도달한다. 이 겉형체는 항상 하느님 자신으로부터 출발될 때처럼 가장 센 크기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비추어지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존재들은 그들이 모든 물질을 극복해 물질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기 전에는 빛을 견딜 수 가 없을 것이다.

가장 깊은 지식에 속하는 것으로는 예수의 사명과 그의 구속사역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일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에 관해 설명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설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항상 단지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통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럴지라도 항상 단지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내게 항상 단지 그가 영접할 수 있는 때로 설명해줄 수 있다. 왜냐면 신적인 지혜는 인간적인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기 때문이고 단지 하나님에게 속한 인간 안의 영을 통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지 영의 역사를 통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 항상 단지 각 사람의 사랑의 정도와 성숙의 정도에 따라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안으로 이성으로는 헤아려 볼 수 없고 헤아려 볼 수 없게 남게 되는 지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 된다. 영을 통해 주는 계시든 아주 적게 용접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항상 또 다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미 사람 안의 영이 아직 잠자고 있다는 증거이고 영이 역사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람이 아직 아버지의 영과 깊은 연결을 이루지 못해서 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런 연결은 가능하다. 이런 연결은 사람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자신을 계시해 진리의 합당한 지식을 이 땅에 보내주기 위한 선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자신에게 역사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자신을 위해 요구한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시켰다고 믿는 연결이 항상 어떤 종류의 연결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지가 바로 시금석이다.

왜냐면 이런 계시는 사람들이 이 땅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해주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으로써 이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거나 그의 계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흐름을 그의 말의 형태로 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밝은 빛 만이 비추어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빛을 받는 자들은 이 빛을 다시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 어떤 빛도 증명할 수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다.

사랑의 계명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를 성취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흐름을 받는 그의 그릇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랑의 계명을 모든 사람이 안다. 모든 사람이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자신의 이웃에게 사랑

을 하게 자극을 주어서 이웃들을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의 소리를 통해 사랑을 행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 안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수신자의 사랑의 정도와 성숙의 정도에 알맞게 깊고도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를 가르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왜냐면 구속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성을 통해 설명할 수 없고 근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이성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사랑을 통해 그 안에 영이 이미 깨어났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반면에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에 그에게 이런 이성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주어질 때 이에 대해 반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신 것과 그의 큰 은혜의 사역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는 일이 적은 이유이다. 왜냐면 이런 지식은 학교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반박하지 않고 영접하며 이전에 잘못 된 지식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던 영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는 깨어난 영을 가져야만 하는 가장 합당한 그릇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단지 진정하게 진리를 갈망하는 곳으로 진리를 이 땅에 보내 준다. 사람들이 더 이상 순수한 진리를 받을 만하게 자신을 신적인 그릇으로 만들어 갈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빛의 존재들이 공황을 베풀어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진리만이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 줄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보 자로써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는다. 이런 예는 종말이 오기 전에 아주 많은 오류에 빠진 혼들을 구하기 위해 항상 한 구원시대의 말기에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믿음.

B.D. No. 2739

1943년 5월 15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공허한 개념이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그들이 아직 창조하는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신성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이런 신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땅에서나 저세상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힘을 느끼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취해야만 하는 특정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알게 해주면, 그들은 어떤 연관성도 거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사랑을, 즉 자신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한 형벌이나 보상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단지 자연을 창조한 기원으로 깨닫는다.

인류 사이에서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믿는 믿음이 적어질수록,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단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인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그가 자연의 창조물 가운데 자신을 가장 높은 존재로 여기고, 명령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그가 이웃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면, 자신이 다스리는 자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약한 사람을 자신에게 복종시키길 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믿는 가운데 사람은 자신을 작게 느낄 것이고, 이웃 사람들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돕고, 자신을 그들보다 더 높이지 않게 된다. 단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주 권세가 있고, 힘이 충만한 존재에 의존한다고 느끼고, 의식적으로 그런 존재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그런 존재의 인도에 굴복하고, 이제 그의 의지의 인도를 받는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고, 그러므로 자신을 분리시킨다. 다시 말해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저항을 유지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또한 사람 자신 안에서 항상 끊임없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그들에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권세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이를 통해 인간은 한 높은 존재의 권세와 힘을 부인할 수 없음을 이미 깨달아야만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을 둘러싼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지나치거나 또는 자신이 창조하는 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여긴다. 그는 창조하는 힘이 자신을 그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과 떨어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로부터 멀리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발산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이 가운데 그가 느끼게 한다. 이로써 그가 자신을 깨닫게 한다.

그러나 느끼게 하는 역사도 항상 자연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 이로써 사람이 믿도록 강요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사람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는 항상 순전히 자연적인 설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그가 자신 위에 있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따라서 아주 권세가 충만해야만 하고, 힘이 충만해야만 하는 높은 존재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가 영적인 추구를 통해 존재에게 순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는 위를 향한 추구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이 깊은 곳에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로부터 자신의 성장을 쉽게 해주는 힘을 받기 위해, 존재와 연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다. 왜냐면 그가 믿기 때문에 그는 신성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신성을 사랑하고, 자신을 신성의 사랑에 합당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 잡히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영원한 사랑으로 계시하고, 영원한 사랑은 자신의 피조물인 그를 갈망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주 큰 사랑을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

B.D. No. 8289

1962년 10월 2일

일어나는 모든 일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좋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 너희 안에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복종하면, 너희가 버림받을 수 없음을 이해하기 위해 너희 안에 내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가 어떤 것을 견딜 능력이 있는지 안다. 나는 너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도움을 의지하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는 내 모든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보장이 너희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왜냐면 내 사랑 안에서 보호를 느끼는 사람에게 비록 그가 외부로부터 자주 공격을 받을 지라도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믿음에 크기를 알고 있고 이 믿음이 유일하게 너희의 위험의 크기를 정한다.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게 허용되었다는 것은 너희에게 사랑과 지혜와 권능인 내 성품에 관해 설명함을 너희가 알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에게 이미 내 사랑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믿음의 능력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더 이상 불안이 없게 되고 너희는 항상 내 안에서 너희 아버지를 깨닫게 된다. 너희가 아버지를 항상 자녀들이 하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이 그의 자녀들이 이 땅의 길을 가는 동안 돕기 위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은 내 사랑이다. 왜냐면 이 사랑이 너희를 타락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단지 원한기만 하면, 사랑은 너희를 인도하고 지도해 너희가 남김 없이 구속을 받을 수 있게 이 땅의 운명을 정할 것이다. 이 사랑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랑이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너희가 한때 대적자를 자유의지로 따랐기 때문에 너희의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구매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원수와 대적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자녀를 위해 싸우고 그의 권세로부터 구한다. 너희는 이런 큰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언젠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만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는 과정을 가면, 너희는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자녀들을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자유롭게 되게 구매해 다시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운데 너희가 속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영원한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이 땅에서 이미 끝 없이 행복하게 하고 언젠가 영원 가운데 행복하게 하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러야 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제 내 끝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으면 너희는 모든 두려움이나 불안함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항상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너희에게 일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하고 그가 너희를 모든 위험 가운데 도와준다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자신의 이웃에게 사람들의 기술과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도움을 주면서 특별하게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나와 긴밀하게 연결 된 가운데 그 자신이 내 능력을 활용하고 그가 나와 함께 역사하고 내가 그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너희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면 자주 스스로 제안을 가한다. 강한 믿음은 사랑의 삶의 결과이다. 왜냐면 사랑이 비로소 믿음을 생명력 있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안에 더 이상 의심이 없다. 그는 내 임재를 의식한다. 그러면 그는 내 사랑이 제한이 없음을 그가 능력을 다시 사랑을 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면, 그에게 제한이 없는 능력이 제공된다는 것을 안다.

내 크고 끝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도달한 것이다. 그는 이 땅에 마지막 의지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영원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된다. 왜냐면 그는 자신을 아버지에게 끌어들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나를 구하게 하고 그가 나를 믿는 가운데 자신을 의탁하고 내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내 도움을

받는 것을 통해 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요구하는 자녀들을 다시 아버지와 하나로 만들어 주는 사랑을 나에게 드리게 된다.

그러면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나가서 불행하게 되었던 나와 다시 자유의지로 하나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삶을 살게 되는 목적을 이루는 성공을 한다. 내 사랑은 그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 것이다. 내 사랑은 언젠가 이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아멘

루시퍼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원인

B.D. No. 8672

1963년 11월 13일

내가 나 자신의 축소판을 생명으로 불러 일으켰을 때 선물해 주기를 원하는 내 끝없는 사랑을 부여줄 수 있기 위해 그릇을 창조했을 때 내 사랑이 능력으로 역사했다. 이 능력은 창조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했다. 내 능력을 모든 그릇에 부여했기 때문에 나로부터 창조된 존재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이들은 내 형상이 같은 창조하고자 하는 열망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계속하여 흘러 들어가는 능력이 역사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능력의 근원인 나에게서 흘러 나가는 능력이 계속하여 생명을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모든 종류의 창조물들을 창조할 때 어떠한 제한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가운데 그들 자신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끝이 없어서 내 사랑의 힘이 모든 존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흘러 들어 갔기 때문이다.

이런 존재들이 창조 일을 중단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내 능력은 제한이 없고 절대로 소진될 수 없고 한때 나로부터 배출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나에게 열어 두는 동안에는 다시 말해 내 사랑의 비추임에 저항을 하지 않으면, 창조하고 조성하기 위해 나로부터 제한이 없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영원히 흘러 들어 가서 항상 영원히 창조물들이 생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축복된 상태는 진실로 중단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나에게 의해서는 절대로 존재들에게 제한을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존재들의 넘치는 축복된 상태에 존재들이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 자신이 그들에게 같은 존재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나를 자신들이 창조되어 나온 자신들의 아버지로 알았다. 그러나 나 자신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그려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를 내 온전함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잘못 된 생각하기 시작했다. 왜냐면 그들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질문을 했으면 나는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었을 것이고 이로써 그들은 그들의 잘못 된 생각을 깨닫고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적인 내 온전함에 대한 의심에서 그들은 나에게 감출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나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강요를 하지 않고 그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놔두었고 그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 왜냐면 그들은 첫 번째로 나로부터 창조되어

나온 존재로써 모든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빛 가운데 빛나는 존재 안에도 같은 의심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존재는 실제로 나에게 영원히 영원 동안 전적인 사랑을 나에게 드렸다. 그는 그의 의지가 자유하였지만 이런 사랑 가운데 나와 같은 의지 안에서 넘치게 축복되었다. 그러나 한 동안 이 빛으로 비추어진 존재에게도 의심이 일어났다. 왜냐면 나는 그에게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나에 대한 큰 사랑이 항상 또 다시 솟아오르는 의심을 물리쳤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드렸고 내 능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같은 성품을 가진 존재들을 계속하여 창조 하는데 자신의 축복을 느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의심이 항상 또 다시 일어났고 그는 할 수 있었던, 이 의심을 나에게 알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심을 하는 가운데 이 의심을 키워 나갔고 그의 나를 향한 사랑은 줄어 들었다. 그러나 이로써 그는 자기 자신이 연약해졌다.

왜냐면 그의 연약해진 나를 향한 사랑이 내 사랑의 흐름을 줄였고 창조적인 일에 제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가 나를 볼 수 있었다면, 그에게는 나로부터 떠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불이 그를 삼켜 버렸을 것이다. 왜냐면 어떤 피조물도 소멸되지 않고 내 사랑의 근원의 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알고 있었다. 왜냐면 그는 최고의 빛이 충만한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완성 된 아름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나보다 더 크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난을 계속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빛과 아름다움에서 능가하는 어떤 존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창조 된 존재들에 대한 지배권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는 이 모든 존재들을 생성시킨 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받았다. 그는 이제 영적인 존재들의 무리를 통해 자신의 권세를 보았고 그러므로 나로부터 능력을 받을 필요 없다고 믿었다. 그는 수많은 존재들을 창조함으로써 이들을 나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믿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나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무기력함의 증거로 보았다. 나는 그가 믿음대로 그를 놔 두었다.

왜냐면 나는 그를 전적인 자유로운 존재로 나로부터 생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가 영원 동안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의 생각과 의지를 바꾸게 강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능력은 이제 저항과 거절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내 능력은 전적으로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존재는 어떠한 창조물을 창조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크고 강력하다고 믿었다. 왜냐면 자신과 같이 나를 대적해 거절하고 내 사랑의 비추임을 거절한 수 많은 영적인 존재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도 모든 행하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그들도 끝 없이 나로부터 멀어 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였다. 그러나 나는 이 의지를 존중하여 그들이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내 사랑의 비추임을 구할 때까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나에 의해 첫 번째로 창조 된 이제 내 대적자가 된 존재도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갈 것이다. 그도 언젠가는 내 사랑의 비추임을 그리워할 것이고 이를 자유의지로 다시 나로부터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비록 영원히

영원의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반발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때 나에 의해 능력으로 발출되어 나온 모든 존재들은 거절할 수 없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인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죄에 대한 질문

B.D. No. 8921

1965년 1월 30일

나로 하여금 너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게 하라. 왜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줄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든 오류는 잘못 된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언젠가 너희의 성장을 보장하는 순수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가장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한번이라도 떠난다고 믿으면, 너희는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는 내 넘치는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으로써 이 땅의 삶을 살았고 이로써 너희가 어떤 권세에 묶여 있는 지를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에게 다가오는 일을 쉽게 형벌의 심판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 자신들을 위해 다시 심판하고 즉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을 새롭게 정리해야만 하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인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파괴시키며 멸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단지 너희에 대한 내 큰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가 다가오는 일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에 가서 너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너희는 언젠가는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스스로 이런 운명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강제적으로 종말이 오게 하고 있다. 너희 스스로 나로부터 멀리 떠나가서 언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너희를 다시 묶는 방법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 다른 수단이 없다.

너희가 이제 내 대적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내 사랑을 줄이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언젠가는 나는 너희를 그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파문을 감으로써 너희에 대한 아무 권세가 그에게 없게 되는 것도 이제 이에 속한 경우가 될 것이다. 단지 영이 깨어난 자들만이 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내 영원한 구원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가 속죄하는데 측량할 수 없이 어려운 이런 죄악에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아직도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한 구원시대 이상을 거쳐야만 함을 믿을 수 있느냐? 너희는 나 자신이 근원이 된 죄를 속죄하게 위해 너희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영원히 영원까지 너희에게 부여 주는 내 사랑을 부정해야만 한다.

너희가 나 자신에 의해 너희 안에 악을 심어주었다는 생각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오류 가운데 거하게 되고 나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다 왜냐면 이런 생각은 모순

된 것이고 깨어난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가장 해가 되는 작품인 이런 생각이 이에 대해 즉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심장으로 영접했다.

즉 내가 항상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악을 경멸하고 절대로 스스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을 불러 일으키지 않음을 그들은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이런 오류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때까지 많은 말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미 깊이 역사했고 그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항상 인간의 이성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고 이성은 악이 나로부터 출발되어 나왔다는 설명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원래부터 영적인 존재들의 타락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필요하게 만든 것을 원죄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한다.

나는 존재들을 온전하게 창조했고 자유의지와 선과 악을 느끼는 느낌을 부여했다. 그러나 악은 내 대적자가 자신으로부터 악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타락한 존재들도 악을 갈망했고 반면에 다른 존재들은 그들이 갈망을 선한 쪽으로 향했다. 나 자신이 존재의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대적자의 권세는 커서 그가 모든 악한 성품들을 존재들에게 전가했다. 이로서 그 혼자 만이 이런 타락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존재들을 같이 책임이 있게 했다. 그들은 이 죄악으로부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왜냐면 타락은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나 자신을 대적하고 내 사랑에 대적하는 죄로써 이 죄는 존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타락에 내가 기여했다는 것은 이미 있을 수가 없고 모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아멘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무지와 같다.

B.D. No. 6765

1957년 2월 18일

존재의 모든 축복은 진리를 깨닫는 일에 있다. 존재는 한때 빛 가운데 있었고 가장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존재는 넘치게 축복됐다. 왜냐면 그가 내 사랑과 지혜와 권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또한 자신의 사명을 알았다. 그는 끊임없이 내 사랑의 힘으로 충만했고 그에게 전혀 어두움이 없었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없었고 그의 의지와 힘에 제한을 가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 이런 상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된 상태였고 가장 빛으로 충만하고 내 생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그가 내 생각을 깨달을 수 있는 영역에 거하는 상태였다.

내 원래의 성품이 나에 의해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쉬지 않고 흘러갔고 이런 일이 존재 안에 제한이 없는 축복을 주었다. 그러나 존재의 상태가 바뀌었고 나에 의해 최초로 창조된 존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의 의지가 나에게 대항했을 때 그는 자신에게 풍성하게 흘러오는 것을 자유의지로 거부했고 이런 과정은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된 모든 영적인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존재는 실제 마찬가지로 최고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그가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의 성품이 나보다 절대로 열등하지 않았고 그가 단지 영원으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내 의지와 내 사랑이 비로소 그를 생성되게 했다. 이런 존재가 자신에게 시작점이 있지만 내가 영원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을 부러워했다. 그가 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모든 피조물들의 주님으로 세웠고 또한 큰 부분의 피조물들이 가장 밝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들의 주님으로 인정했다. 존재는 아직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속성을 잃게 되었다. 왜냐면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특성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고 이로써 사랑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존재는 어두움 속으로 가라 앉았다. 그의 상태는 축복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빛과 힘이 없게 되었고 그는 영원에 영원한 기간 동안 이런 불행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최초로 창조된 존재와 그의 추종자들의 의지가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의 빛인 나 자신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실제 나를 인정하는 일을 거부할 수 있고 나를 떠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패배시키고 소멸되어 사라지게 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권세를 가진 가운데 머문다. 내가 원하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도 내 권세 앞에 복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가 자원하여 추구하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존재가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기를 원하고 다시 나에게 향해 다가오기를 원하고 다시 나로부터 힘과 빛을 받기 원하면, 나는 또한 존재에게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가 원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 그들에게 깨달음이 부족하

고 그에게 빛과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다시 빛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다. 나는 존재들이 끝없이 긴 성장 과정을 거친 후에 원한다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다시 되게 한다. 이런 상태는 인간의 상태이고 내가 존재에게 다시 진리를 제공하고 이로써 존재가 다시 축복된 상태가 되게 한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이런 일을 성취시켜야만 한다.

존재가 한때 소유했던 것을 그가 이제 먼저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얻으려는 이런 의지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그러면 존재는 이전의 빛의 정도를 초과하는 빛의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 왜냐면 존재가 이제 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실제 깊은 곳에 머물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이 동인이 되어 높은 곳을 추구했고 이제 말할 수 없게 축복되게 된다. 왜냐면 그가 다시 진리의 빛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모든 어두움이 그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이고 모든 신적인 성품이 존재를 충만하게 채우기 때문이고 그가 이제 내 대적자에 의해 나를 떠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나를 떠난 처음으로 창조된 존재의 죄는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나에게 귀환하는 길을 가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제한이 없는 축복을 단지 그의 아버지인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거절한 결과이다

B.D. No. 8929

1965년 2월 9일

너희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결과이다. 이는 그의 능력을 거절한 결과이다. 왜냐면 이 때문에 너희는 모든 창조의 권세와 빛을 잃고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너희의 안과 주변이 어두움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깨달음과 지식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모든 존재에게 충만했던 모든 축복을 잃게 되었다.

너희는 끔찍한 상태를 만들었고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끝 없이 긴 시간 동안 받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그의 사랑의 힘을 거절한 것은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너희의 자유의지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넘치게 축복된 가운데 가장 밝은 깨달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볼 수 있는 자를 따름으로써 비록 너희가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끝나게 한 것은 너희의 자유의지였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가 지은 죄는 아주 큰 죄이다. 그러나 다시 최고의 축복된 상태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어떤 것도 그의 끝없는 사랑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시간은 그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는 영원으로부터 존재했고 영원에 영원에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지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에 상태처럼 온전하게 되기 위해 영원한 질서를 따라 움직여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 예수가 완성한 것처럼 사랑의 역사를 통해 다시 속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에 이 땅의 창조물들을 거치는 아주 긴 과정이 요구 된다. 이 가운데 타락한 자는 묶인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죄를 어느 정도 속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이 인간으로서 그의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러야 할 때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시험은 자유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갈지 또는 자신을 깊은 곳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또 다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이 없이는 축복되게 될 수 없음을 너희가 전에 빛과 능력을 버렸기 때문에 능력과 빛이 없는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희는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행복한 상태가 아님을 아닐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가 너희에게 부담을 주는 너희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죄짐이 없이 다시 능력과 자유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이런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행하신 공훈의 사역을 너희가 무시할 경우, 너희는 절대로 너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만약에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요구하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너희를 다시 그의 권세 아래 두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저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너희를 다시 파멸되게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지라도 여기는 큰 위험이 있다. 종말의 때 아주 특별히 위험하다. 이 위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너희에게서 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깊은 곳으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의 시간의 시간이 다시 시작 된다. 그들이 다시 한번 빛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을 다시 받기 위해 그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게 과거의 시간은 마치 눈깜짝할 사이인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가 이제 누릴 수 있는 영광으로 인해 자신의 창조주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다. 질서에서 벗어난 것은 그에 맞는 의로운 형벌이 뒤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법칙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를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왜냐면 그의 사랑은 모든 타락한 자들을 뒤 따라간다. 그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시 높은 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의 사랑이 모든 그의 작품이 들어 있는 이 세상을 했다. 그의 사랑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 안에서 위를 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 그의 사랑이 언젠가는 모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된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다.

아멘

합법적인 귀환. 이 땅의 과정.

B.D. No. 5423

1952년 6월 28일

영적인 존재가 성장을 목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과정이 그가 한때 자유의지로 버렸던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이 과정을 가야만 한다. 왜냐면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원래 정함받은 일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힘과 빛으로 역사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한때 존재의 의지가 존재의 힘과 빛을 빼앗았고, 존재는 자신이 온전한 존재가 된 근거인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났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존재가 다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존재는 먼저 묵임을 받은 가운데, 나중에는 잃어버린 온전함을 되찾아 그에게 이제 제공되는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자유의지로 다시 질서에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의 과정은 질서로 돌아가는 일이다. 이 일은 또한 의지가 묵임을 받은 가운데서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면 존재가 다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이로써 존재가 성장해야 할 곳에서 퇴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의 과정이 이전의 온전함에 다시 도달할 것인지 또는 그 존재가 묵임을 받은 상태에서 도달한 성숙한 정도를 다시 잃을 것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 존재 자신이 인간으로서 영원을 위한 자신의 운명을 정하거나 또는 온전한 상태가 되게 하는, 그의 혼을 신적하게 만드는 일을 다시 영원에 영원뒤로 미루게 된다. 그러면 존재가 영원히 불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온전함이 없이는 축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은 끝없이 긴 시간의 마지막 기회이다. 왜냐면 비록 하나님이 이런 혼을 포기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혼에게 행복한 축복이 주어질지라도, 존재는 고통이 있고, 빛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영원을 보내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질서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므로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에게 빛과 능력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땅의 너희의 삶을 바라본다면, 너희의 혼과 온전하게 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너희가 짊어진 큰 책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모든 가능성이 제공되고, 너희는 이 땅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자신의 의지가 없이는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의지가 한때 존재가 뒤집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질서를 뒤집은 일이 당연히 또한 그 자신이 불쌍한 상태가 되도록 역사했다. 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고 그러므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런 일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일은 그런 일로 인한 결과이다. 왜냐면 깨달음이 빛이고 너희가 이 빛을 자유의지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추구한다면, 너희는 빛을 다시 얻을 수 있다. 너희의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갈망이 이미 너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또한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에 합당한 것으로 깨닫는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온전하기 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고,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원래의 상태에 접근하게 된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라서 너희가 한때 생성되어 나오게 한 분에게 돌아가게 되고, 충만한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받게 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고 제한이 없게 너희가 축복되게 해주기 원하는 아버지를 영원히 다시는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B.D. No. 8504

1963년 5월 21일

나는 선하고 공의한 하나님이다. 내 피조물들에 대한 내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나는 모두를 축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전해주기 원한다. 왜냐면 사랑이 이렇게 하게 나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최고로 온전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영원한 내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만 한다. 모든 내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게 돼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 공의도 내 온전함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증명하기 원하는 내 크고 넘치는 사랑에 제한을 가한다. 나는 죄를 범한 존재를 축복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내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내 영원한 법칙에 의해 묶임을 받는다. 사랑은 단지 온전한 존재만을 축복할 수 있고 이 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게 축복되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실제로 죄를 지은 존재들이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게 도우면서 공의가 은혜를 허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위한 의지는 존재 자신에게서 나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해야만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갈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도움을 청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들의 의지와 반대로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나는 존재가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 스스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고 내 공의를 만족시킬 때까지는 내 사랑으로 존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생명으로 부름 받은 영적인 존재들은 나를 대적했다.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내 공의가 사랑이 이전과 같이 존재들을 측량할 수 없게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에는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만약에 존재 스스로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절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이고 이로써 내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어 내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존재들은 영원한 동안 내 사랑의 흐름에 영역에서 쫓겨났어야만 했다.

그렇지라도 존재들이 언젠가 다시 내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서 행복하게 될 수 있게 되려면 영원한 신적인 법칙에 따라 속죄는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런 구속사역을 인간 예수가 나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들의 불행한 상태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원한 이웃들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했다.

이를 통해 내 공의는 만족 되었다. 내 사랑은 이제 다시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나로부터 한 때 생성되어 나온 존재에게 사랑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 나 자신이 영원한 사랑으로써 그들에게 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존재를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때 나를 떠나간 죄가 범죄한 존재에 대한 내 사랑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존재 의지와 반대로 그에게 사랑의 힘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그의 저항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내 온전한 상품의 속한 공의가 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온전함의 근거인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다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기 위해는 이 전에 그의 죄짐이 해결돼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이 법을 성취시켰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전적으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모든 죄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한때 타락한 자들의 모든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큰 희생 제사를 드렸다. 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영접했다. 나는 나를 떠났던 존재들이 그리고 사람들 자신이 짊어진 측량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로 만족했다. 나는 인간이 예수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해 드린 희생 제사를 받아들였다.

예수 안의 사랑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러나 죄사함은 내가 고난받을 능력이 있고 고난을 받을 의지가 있는 타락한 자들의 죄짐에 대한 대가로 측량할 수 없이 고통을 스스로 당한 한 사람의 형체 안에서 단지 완성시킬 수 있는 속죄를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로써 공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대가가 지불되었다. 이제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은 자신을 선물하고 피조물들을 측량할 수 없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피조물들은 다시 죄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고 원초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내 사랑으로 비추어 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다. 내 사랑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 사랑은 무엇보다 한때 죄를 지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죄를 자유의지로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아서 이를 예수에게 전가해서 내 공의를 회피하지 않으면서 그럴지라도 이 존재들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돕는다. 왜냐면 사랑 자신이 자기를 희생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왜냐면 한때 타락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자신들의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들에게 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선물해주길 원하는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그들이 자신의 측량할 수 없는 죄짐으로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내가 공의한 하나님으로서 요구해야만 하는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준비가 되어있는 예수 안의 사랑 자신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큰 죄에 대한 보상이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내 온전함은 질서의 법칙을 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죄에 대한 속죄를 해야만 한다. 왜냐면 내 공의가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함.

B.D. No. 7484

1959년 12월 23일

내가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임했다. 내 혼은 혼이 거하는 곳이 깨끗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고통당했다. 왜냐면 내 혼은 빛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이다. 내 혼은 모든 것이 순수하고 밝고 선명한 곳에서 넘치게 축복된 곳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 가운데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는 곳에서 왔다.

내 혼은 모든 것이 어둡고 자유롭지 못하고 연약한 이 땅에 임했고 모든 곳에서 어는 때이든지 내 혼을 공격하는 악한 영으로 충만한 이 땅에 임했다. 왜냐면 내가 임한 땅은 사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을 그의 종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원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은 사탄에게 묶여 있었고 그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혼은 자유했다. 그럴지라도 나는 자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스림 받는 법칙에 순응했다. 내가 이 땅에 임한 이유는 한때 나를 떠나 타락했고 귀환하는 길이 막혀 귀환의 길을 다시 열어 줄 구원자가 필요한 너희 사람들을 향한 내 큰 사랑 때문이다.

내 너희를 향한 사랑은 아주 크다. 이 사랑은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하였을 때 줄어들지 않았다. 내 사랑은 너희를 위해 너희가 다시 영원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자신의 자녀와 절대로 떨어지길 원하지 않고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자녀를 다시 얻기 위해 자녀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한 길을 찾았고 스스로 이 길을 열었다. 이로써 내 피조물인 너희가 이 길에 들어서고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로 남기 원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길을 갈 수 있게 했다. 죄를 지은 내 피조물을 그의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 나 자신이 이 땅에 임해 그들 가운데 거했다.

나는 최악 가운데 거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최악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했다. 교만과 지배욕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 깊은 곳으로 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자유롭게 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도움이 되는 손길을 내밀었다.

내 사랑이 이미 일하여 그들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제 단지 자신의 능력으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의, 그들 자신이 자유의지로 떠난, 나 자신에게 확실하게 올라가기 위해 내 손을 잡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이 땅에 낮아져 임했다. 나는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써 인간들 사이에서 살았다. 나는 단지 순수했고 항상 죄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로써 내 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나 자신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를 단지 이 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순수하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원죄의 죄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형체 안에서 나 자신이 거한 인간 예수는 이 죄짐으로부터 자유했다. 나는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원했다. 나는 단지 순수하고 죄가 없는 형체 안에서 거할 수 있었다. 왜냐면 내 신적인 사랑의 불길 이 순수함과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내 사랑의 힘을 견딜 수 없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형체를 충만하게 채워 주었다. 이는 사람들에게 내 신성을 증거해줄, 예수의 사명을 깨닫게 해줄, 그의 설교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을 통해 나타냈다. 왜냐면 내 혼은 순수하고 죄가 없이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 영은 모든 충만함으로 외부로 역사할 수 있었다.

인간 예수 가까이로 다가 온 모든 사람이 인간 예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신성인 나 자신이 그 안의 내 영을 통해 역사했고 인간 예수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그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죄는 이와 같이 일어난, 형체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했다.

이웃의 죄가 나를 말할 수 없게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그러나 나로 하여금 구속사역을 행하게 했다. 왜냐면 이 역사가 사탄이 이 세상에 가져온 죄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구매하기 위해 이 죄는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들 스스로는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다. 대적자가 한때 자유의지로 자신을 깊은 곳까지 따랐던 혼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을 제공한다. 나는 이 전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능력을 구매했고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는 너희에게 이 능력을 준다.

나는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주인으로부터 너희를 구매해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런 내 희생을 너희를 위해 활용하려면, 너희가 그를 떠나 나에게 향하길 원하면, 이 의지가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라면, 그의 방해를 받을 수 없고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인류가 자신들의 위험 가운데 한 구세주를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임했다. 인류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 죄는 항상 또 다시 인류를 바닥으로 짓 눌렀다. 인류는 도움이 없는 일어설 수 없었다. 내 임재를 통해 내 희생의 죽음을 통해 언젠가 이 땅에 거할 모든 사람을 위해 드러진 구속사역을 통해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살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죄를 내 어깨에 짊어 졌다. 나는 순수하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써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갔다. 이로써 나는 죽음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구원했다. 왜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축복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는 자유롭게 되고 빛과 능력 가운데 축복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B.D. No. 5192

1951년 8월 19일

예수는 나와 사람들 사이에 연결을 이뤘고, 사람들 가까이에 거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영을 통해 나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중재자였다. 너희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면, 너희는 피할 수 없게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유일하게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힘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그의 도움으로 너희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시킬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나 자신이 너희를 만나기 위해 그를 보냈고, 너희가 이제 그를 거부하면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고, 너희는 절대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

그는 너희의 위험과 너희가 깊은 곳을 벗어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영광과 빛의 나라에서 너희에게 내려 간 내 아들이다. 그는 너희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인간의 겉형체를 입었다. 그러나 그의 혼은 나와 연결을 유지했고, 그의 혼은 몸에 대항하여 자신을 관철시켰고 또한 육체가 나에게 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나 자신이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의 형체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들 통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에게 향한 사람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 왔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신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와 사람들 사이를 중재했고, 타락한 존재들을 일으켜 세워 나에게 다가오게 했고,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이 길의 안내자로 제공했다.

나는 이런 일을 영원으로부터 보았고, 내 피조물의 끝없는 나와 의 간격과 연약해진 의지의 힘을 보았다. 나는 내 대적자를 통해 의지가 묶인 피조물들을 보았고, 그들을 도와 자신을 사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야만 했다. 나 자신이 내 대적자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오용했고, 이로써 그의 의지를 통해 생성되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생성된 존재들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었다.

내가 내 전능함으로 존재들을 내 대적자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존재들이 자원하여 그로부터 도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도피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야만 했고, 구원자는 자신의 의지로 대적자의 의지에 대항했고, 대적자를 정복했다. 구원자는 인간 예수였다. 그는 인류를 향한 사랑에서 싸움을 시작했고, 자신의 안의 사랑을 가장 높게 확장시켰고, 이로써 나 자신을 그에게 이끌었고, 내 힘으로 이제 대적자를 이겼다.

그를 인류의 구원자로 여겨야만 하고, 그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그에게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힘의 전달자로 여겨야만 한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얻은 분이 이제 이 은혜를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나를 자신과 나 사이의 중보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직 그들을 나와 분리시킨 길을 혼자서 갈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는 가운데 그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는 사람은 분명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에게 인도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시험에 대항하는 예수의 싸움.

B.D. No. 7056

1958년 3월 5일

내 이 땅의 삶도 너희가 극복해야만 하는 같은 시험과 싸움이 있었다. 나도 이 땅의 모든 육체의 입자들을 올바른 질서 아래 두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나는 정욕을 알았고 이 정욕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다. 왜냐면 나도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내 안의 의지의 능력이 연약함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나는 내 육체에 강제를 행했다. 나는 내 육체가 내 혼을 능가하는 권세를 얻지 못하게 하고 종이 된 인류 가운데 거할 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힘으로 육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짓누르는 위험을 보았다. 내 안에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의 육체적인 갈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갈망을 따르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내 육체의 욕망에 주의하고 성취시켰다면, 단지 내 도우려는 의지가 약해짐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어려운 싸움이였다. 왜냐면 모든 방향에서 유혹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내 안의 인성이 만족을 구했다. 그러나 내 혼은 하나님께 향했다. 혼은 공격이 심해질 수록 항상 더욱 아버지와 연결이 되길 구했다. 그러므로 혼은 항상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 왜냐면 아버지와 연결이 절대로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과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쉬운 삶을 살지 않았다. 왜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전에 너희의 과제와 같은 사랑을 최고로 확산되게 하여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을 모든 충만함으로 내 안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 이는 이 땅에서 너희의 목표이다.

비록 내 혼이 빛의 나라에서 왔을지라도 그러나 혼은 너희의 육체와 같이 물질인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권세를 아직 가지고 있는 대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입자에게 항상 모든 종류의 욕망과 정욕을 따르게 재촉하는 아주 큰 공격을 받았다.

내가 인간으로써 이에 패배하지 않게 된 일은 단지 저항하게 내 안의 의지를 강하게 한 내 안의 사랑이 가능하게 했다. 어둡고 죄악 된 환경 안에 거하는 일이 악한 영들이 외부로부터 육체를 공격하는 기회를 주었고 유혹하는 장면들로 현혹시키는 기회를 주었다. 이런 현혹은 감각을 무디게 하고 내 저항을 약하게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이런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는 안 되었다. 나는 그들을 진정시켜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만 했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언젠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그들도 공허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나는 권세로 이런 악한 영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되었고 인내와 온유로 대해야만 했다. 나는 그들에게 대항해야만 했고 그들이 나를 떠날 때까지 내 사랑의 의지로 그들을 달래야만 했다.

나는 인간이었고 인간처럼 싸우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다. 왜냐면 이런 모든 일이 내가 내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완성하기 원했던 구속사역에 속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그들의 연약함과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연합이 되는데 도움이 되게 모범적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힘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일이 가능한 일임을 증명해주기를 원했다. 즉 사랑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요 마지막 조건임을 증명해주기를 원했다.

내 안의 사랑이 인간인 나에게 불행한 상태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고 너희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 비로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구속사역을 목적으로 내 혼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내 안의 사랑이 나에게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주었다. 나는 내가 인간으로써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힘으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요청했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에게 주기를 간청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내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나 자신을 만들었고 모든 욕망에 내 대적자가 내 안에서 깨어나게 하기 원하는 모든 순수하지 못한 생각에 저항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나는 항상 내 사랑으로 대적자에게 대항했고 대적자는 사랑을 피해야만 했다. 이로써 곧 내 심장 안에 단지 사랑이 충만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더욱 긴밀하게 영원한 사랑과 연결되었고 영원한 사랑은 사랑을 나에게 선물하고 이제 내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어 내가 강한 의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목표를 향해 가게 했다.

그렇지라도 대적자는 물러서지 않고 항상 또 다시 내 의도를 그가 볼 수 있게 될 수록 더 많이 나를 유혹하면서 내 육체를 특별하게 공격했다. 나는 내 죽는 날까지 그에 대항해 싸워야만 했고 항상 또 다시 내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서 내가 내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께 기도했다. „만일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와 연결이 더 강했고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했다.

나는 인류의 끝없는 비참함을 보았고 항상 강해지는 사랑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위해 준비되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단지 나 자신의 겉형체였고 내가 그 안에 거할 수 있었다. 구속사역을 완성한 것은 사랑이었다. 인류의 죄짐을 사해준 것은 사랑이었고 이 사랑이 나 자신이다.

아멘

고난의 금요일. 골고다를 향한 길.

B.D. No. 5643

1953년 4월 3일

골 고다의 길은 내 이 땅의 여정의 끝이었고, 이 길은 승리였고, 성취였다. 이 길은 가장 어렵고, 가장 비참한 희생의 길이었다. 왜냐면 이 길의 세부적인 일이 죽음의 순간까지 선

명하게 내 눈앞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고통을 알았지만, 의식적으로 이 길을 갔다. 그러나 나는 마찬가지로 최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위험을 눈 앞에 보았고, 측량할 수 없는 죄짐과 이로 인한 효력이 마치 멍쳐진 짐처럼 내 어깨 위에 있었고, 만약에 내가 이 짐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류가 이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죄짐이 영원히 영원 동안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나는 모든 인류의 고통을 내 영의 눈으로 보았고, 불행한 영적인 존재들을 긍휼히 여겼다. 그러므로 나는 인류의 죄 짐을 대신 지고 골고다의 길을 갔다. 나는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스스로 짊어 졌다. 이 죄는 아주 크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으로 속죄가 가능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죽으려고 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절대로 이 고통을 줄이려고 하지 않았다.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내 긍휼의 역사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내 신성을 알고, 이 신성으로 또한 가장 큰 고통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인간으로서 고통당하고 죽었고, 사람이 단지 견딜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나에게 주어졌고, 나는 혼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고난을 당했다. 내 원수는 단지 육체에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끔찍하고 미움이 가득한 말들을 했고, 내 혼은 이를 지옥의 표현으로 깨닫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나는 견디었다. 그들이 그들의 엄청난 죄 짐을 스스로 져야만 했다면, 이를 위해 그들에게 영원히 영원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을 나는 인간 예수로서 지나쳐 버릴 수 있었다. 내가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을 질 수 있는 한, 내가 짊어짐으로써 나는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내 사랑이 인류의 큰 위험을 지나쳐 버릴 수 없었고, 내 사랑이 도우려고 했고, 내 사랑이 모든 종된 자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고, 내 사랑이 모든 죄인들에 대한 용서를 간청했고, 내 사랑은 속죄를 행하려고 했고, 그러므로 자신을 하늘의 아버지께 제물로 드렸다.

그러나 사람들이 드려진 제사를 인정해야만 하고, 나에게 의해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뜨거운 사랑으로 부른다: 내 제사가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주 큰 죄짐이 있음을 깨닫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하라. 내 십자가의 제물이 너희를 위해 드려진 것으로 영접하라. 너희를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 두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희를 위해 헛되지 않게 하라. 너희의 모든 죄를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를 영접하게 하라. 너희 모두는 내가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흘린 내 피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수난의 금요일

B.D. No. 8791

1964년 3월 27일

너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과정과 십자가 상의 고통을 측량할 수 없다. 왜냐면 이는 인간의 개념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의 힘이 인류와 아버지와의 화친을 주는 이런 최고로 어려운 희생을 치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너희가 내 고통과 아픔을 상상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연약한 비교로만 남을 것이다. 왜냐면 이 고통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너무 커서 진실로 내 십자가의 희생은 유일한 역사이고 유일한 역사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이 고통의 시간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사람도 이런 희생을 치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고통의 일부분만으로도 사람들을 죽게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인류의 죄에 대한 올바른 속죄를 드리기 위해 고통을 당하기를 원했다.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께 이런 속죄사역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없는 그의 잃은 자녀들을 다시 돌려 드리기 위해 속죄의 희생을 드리기를 원했다. 나는 자유의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내 타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길을 갔다.

나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운명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두 배로 고통을 당했다. 왜냐면 항상 내 눈앞에 십자가의 그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십자가로 인도하는 고난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자유의지로 이 사명을 완성했다. 나는 대적자로부터 나에게 의해 구속을 받으려는 준비되어 있는 모든 그의 혼들을 구매했다. 왜냐면 나는 인간들이 연약하게 된 원인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들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을 얻어 내었다. 이 도움으로 그들은 한때 그들이 깊고도 깊은 곳으로 추락했던 높은 곳에 다시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 혼자서는 절대로 다시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다. 나는 내 타락한 형제들에게 긍휼을 가졌다. 왜냐면 나는 하나님 곁에 있는 축복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포기하였는지를 알았다. 나는 만약에 한 사람이 그들의 한때 아버지로부터 떠남으로 자신에게 짊어진 이 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아버지의 면전에서 영원히 추방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전적인 의식 가운데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혼적인 고통의 결과를 자신에게 짊어지고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이 길을 끝까지 가서 긍휼의 사역을 완성하는 이 역사는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면 나는 모든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고 마지막 사명을 수행해야 할 당시에 내가 체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최고로 잔인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내 생각은 점점 더 인간 적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하기 위해 한때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사하기 위해 한 사람의 고난을 당하는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안의 사랑이었던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속사역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뒤로 물러서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내 하느님, 왜 당신은 나를 떠나셨나이까?"

내 안의 아버지를 의식하는 것은 고난을 줄이는 효과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내 고통의 정도는 내가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타락한 원래의 영들과 모든 인류의 죄를 생각할 때에 충분하게 클 수가 없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써 이 사역을 끝까지 마치길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의 뜻 아래 나를 복종시켰다.

이는 처음부터 내 의지였다. 단지 죽음을 앞두고 짧은 기간 동안 흔들리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다시 다음과 같이 부르짖어 쓸 때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복종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진실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도 다 이룬 적이 없고 다 이를 수 없는 어려운 제사를 드렸다. 왜냐면 이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능력을 얻었다. 왜냐면 이 사랑이 죽음의 시간까지 내 안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다음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비록 내가 희생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안 했을지라도 나는 아버지와 연결이 되었고 연결되어 남아 있었다. 언젠가는 너희는 이런 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빛의 나라에 가게 되면, 비로소 너희는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자유의지로 죽음을 선택한 내 형제들을 향한 크고 넘치는 내 사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누구든지 자유의지 가운데 나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면, 그리고 그가 내가 내 피를 흘려서 구속한 내가 내 죽음을 통해 속죄한 내 피를 통해 그들을 아버지와 격리시킨 죄의 용서를 받은 무리에 속하기를 원하면, 다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

B.D. No. 5932

1954년 4월 16일

이해할 수 없는 공황의 역사가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일어났고 이런 공황의 역사는 모든 인류를 위한 역사이고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한 역사였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졌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원래 초기의 죄짐을 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원래의 죄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만들었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이 대항하는 하나님 앞에서 원래 초기의 죄짐을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 죄짐의 크기를 모르고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이룬 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비록 내 고통이 너희에게 묘사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 참았던 고난과 고통의 정도를 비슷하게라도 측량할 수 없다. 왜냐면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악성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히고 지옥의 모든 세력이 공격할 때 내 혼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었고 지옥이 내 혼에게 단지 행할 수 있는 악을 행함으로 내 혼이 더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혼은 맑고 순수했고 내 혼과 어두운 사람들과의 간격이 엄청 났고 악마들의 영역에 거했고 악마들의 영역에서 단지 내 혼에게 사탄적인 공격을 자행했다.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내 혼은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고 죄와 어둠에 아주 큰 공포를 느꼈고 몸도 또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사람들이 단지 생각해낼 수 있는 고통과 굴욕을 나에게 주었고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비열한 행동을 기뻐했다. 지옥이 나를 공격했고 사탄이 그의 권세 아래 두고 있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를 다시 주기를 원했던 사람

들을 향한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은 지금까지 사람이 싸워야 했던 가장 힘든 싸움이었다.

나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의 아주 큰 타락을 보았고 그들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죽었다. 왜냐면 내가 그들이 단지 내가 싸우는 자의 도구라는 것을 알았고 사탄 자신이 나를 대적했고 사탄을 물리치는 일이 내 구속사역의 목적임을 알았고 사탄의 압제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일이 내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내가 자발적으로 받아드린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은 아주 컸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 배의 고통을 겪었다. 왜냐면 나에게 행한 일이 단지 증오와 사랑이 없는 행위였고 이런 행위로 내 사랑에 반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고통받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을 속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의식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어려운 길을 갔고 잔을 마지막까지 마셨다. 나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잠시 나를 해방시켜주는 실신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았고 내 시간이 올 때까지 버티도록 내 몸을 강요했고 고통받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 몸과 혼이 모든 죄의 결과를 감당하고 짊어지는 일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너희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죄의 결과를 짊어져야만 하고 모든 사람이 실패했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 고통을 당했고 그러므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왜냐면 죄짐이 측량할 수 없게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 겪은 고통과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의 시간들 중 한 순간을 너희가 볼 수 있게 하면, 너희들이 받은 강력한 인상으로 기절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이 언젠가는 이런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언젠가는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했고 왜 행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칭송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했고 구속 역사를 통해 너희 혼의 죽음을 원했던 자의 손으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켰다는 것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너희에게 향하는 내 사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 상의 주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B.D. No. 7758

1960년 11월 28일

나는 너희의 사랑을 갈망한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한 말을 생각하면, 내 말이 단지 육체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 혼이 내 피조물의 사랑에 목말라 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인간 예수 안의 "신성"이 자신이 표현했다는 것을 알라. 나는 내가 너희의 죄짐을 해결한 후에 너희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할 너희의 사랑을 목말라 한다. 너희는 먼저 너희 안에 사랑이 살아나게 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인정하고 이제 구속사역의 이유를 알게 돼야 한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너희에게 이런 지식을 줄 수 있고 너희가 단지 사랑 안에서 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말을 했다. 그러나 인간 예수는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므로 고통받는 몸에서 나온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대로 신성이 자신의 피조물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인간 예수는 자신이 이 말을 한 줄도 몰랐고 나 자신이 사람들이 단지 말씀의 세상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표현을 했다. 왜냐면 신성이 이런 초인간적인 고통을 허락한 일과 원죄를 갚기 위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일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한때 내 사랑을 거부하고 스스로 사랑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죄를 지었다. 나는 이런 존재들의 사랑을 원했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존재들 자신이 나에게 돌아올 자세가 있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게 했다. 이런 자세는 사랑을 전제로 한다. 내가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다면, 사람들은 자진해서 나에게 돌아오고 돌아올 수 있다. 왜냐면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말씀을 생각할 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사랑이 너희를 그에게 인도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한 후로 내가 간절히 원했던 사랑을 나에게 드리게 된다. 사랑이 너희를 생성되게 했고 사랑이 너희가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왜냐면 너희가 내가 창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내 자녀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깊은 곳까지 너희를 뒤따라 갔고 내 사랑이 너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완성했다. 너희는 이런 역사에 대해 단지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드리면 된다. 단지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긴밀함으로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드렸을 때 너희의 죄는 해결되었고 나에게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내 사랑의 희생 제사가 너희 안에 사랑을 타오르게 했고 너희는 희생 제사를 희생 제사로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어두움에 묶여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신적인 사랑의 가르침은 나에게 향하는 길을 알려주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일은 또한 너희에게 너희의 본성을 사랑으로 다시 바꾸는 일을 의미하고 너희가 이제 다시 나와 최종적인 연합을 이루게 하고 이로써 또한 너희의 사랑에 대한 내 갈망을 성취시킨다.

아멘

십자가 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B.D. No. 7764

1960년 12월 5일

나는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항상 나누어 주기 원한다. 너희는 단지 너희 안의 음성에 주의 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이 음성이 진리에 합당하게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가 진리 안에서 서기를 원하고 선명한 개념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사람들에게 구속을 주었고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을 용서해주었다. 나는 인간 예수로써 가장 큰 고통을 스스로 짊어졌다. 가장 비참한 죽음이 내 운명이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통 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이웃을 위해 고난을 당하려는 의지를 가진 인간적인 형체 안에 거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게 만든 것은 그의 자유의지였다. 비록 사랑이었던 나 자신이 그가 이런 의지를 갖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을 지라도 그는 자신 안에 거하는 신성에 이끌려 그가 나에게 드리기 원했던 그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 자신이 사람의 의지에 어떠한 강요도 하지 않고 내 사랑도 어떤 강요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빛이 발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사랑을 발산했고 그는 단지 사랑을 발산하는 일을 통해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이웃들이 축복받게 도울 수 있는 일을 원했다.

인간 예수의 의지는 자유 했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전적으로 나와 내 뜻에 복종했다. 그러므로 그의 의지가 내 의지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될 수 없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아주 강하여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했고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렇지라도 인간 예수는 가장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 들어설 때 마지막 결정을 스스로 해야만 했다. 이로 영원한 사랑인 내가 그 안에 있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은 뒤로 물러섰다. 다시 말해 사랑이 그리고 영이 더 이상 그로 하여금 그가 행하게 재촉하지 않았다. 영은 조용하게 처신했고 인간 예수는 걸로 보기에 자신의 싸움 가운데 홀로 있었다. 인간 예수가 그의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을 느끼고 그렇지라도 마지막까지 이 길을 간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왜냐면 내가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된 그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면 큰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주 큰 인간적인 고난과 고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을 인간 예수는 자원해 자신이 짊어졌다. 그러므로 구속의 제사는 이 땅에서 행하여진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공활을 가진 사랑의 역사였다. 이런 고통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가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해 나를 떠나십니까?" 나는 그 안에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말하였을 때 그의 혼이 나를 다시 깨달을 때까지 고통 당한 것은 단지 육체였다.

육체는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했다. 나는 이 시간까지 뒤로 물러섰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미 영화 된 혼이 육체를 고통을 느낄 수 없게 했을 것이다. 왜냐면 나로부터 온 영은 고통을 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그의 이 땅에 삶을 통해 혼과 육체의 영화에 이미 도달했다. 그러나 그의 이 땅의 과정의 목적과 목표는 단지 아주 큰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가능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신성이 뒤로 물러서고 인간 예수를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맡겨 두었다. 그들은 내 대적자의 명을 받아 진실로 가장 악한 일을 행했다. 왜냐면 예수 자신이 그렇게 되길 원했기 때문이다. (1960년 12월 5일)

왜냐면 그의 혼이 이 땅에 임해 자신의 타락한 형제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혼은 바로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자신이 짊어지도록 육신을 입기 위해 자신을 제공했다. 왜냐면 단지 인간이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제사를 받아들이고 절대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사랑을 주었다. 비록 사랑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을 지라도 사랑은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이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제사를 그가 실제로 드리는 구속사역이 최고점에 도달하도록 내가 조용하게 처신했을지라도 나 자신이 그 안에 있었고 내가 이런 제사를 모든 인류의 죄짐을 위한 속죄의 역사로 받아들였다.

신적인 능력이 그의 희생제사를 쉽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 왜냐면 사랑 자체가 비록 전적으로 모든 인간 예수를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하내 비밀이다. 인간 예수가 체험해야만 했던 자신이 혼자 남겨지고 버려진 것처럼 느낀 일은 가장 큰 고난이었다. 바로 이런 고난이 모든 존재가 나를 떠날 때 지었던 죄를 용서했다. 나는 내 모든 사랑을 존재에게 선물했고 존재가 이 사랑을 거절했다. 인간 예수는 이런 아주 큰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그는 부르짖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해 나를 떠나십니까?"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구속사역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너희는 나를 찬양하고 끊임없이 칭송할 것이다. 왜냐면 이 구속사역이 너희 모두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이고 너희 모두가 구속사역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너희 모두에게 구속사역을 통해 나에게 향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이다.

아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B.D. No. 8201

1962년 6월 27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총만했다. 모든 고난을 묘사하는 일은 단지 내가 고통 당한 것에 비하면 연약한 비유일 뿐이다. 왜냐면 내가 구속사역의 모든 단계를 미리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지막 과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나에게 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위로도 없었다. 왜냐면 나는 마지막 시간을 단지 인간으로써 견뎌야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실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마지막까지 나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은 내 의지 의해 더 이상 사랑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 능력이 나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또는 없애기 위해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역사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주 큰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이 요구되는 구속사역이 전적으로 유효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의지를 알고 있었고 스스로 뒤로 물러서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왜냐면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특별히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내 아버지를 향한 내 사랑과 다시 사람들을 향한 내 사랑을 최고로 높은 정도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런 간절한 소원은 증가되었다. 왜냐면 내가 그의 역사와 그의 사랑의 힘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영원한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 자신이 인간으로서 죄악 된 인류를 위한 긍휼의 사역을 끝까지 실행하기를 원했다. 왜냐면 내가 나 자신을 아버지 대신에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일은 내가 아버지에게 증명할 수 있

는 가장 큰 사랑이었기 때문이다. 왜냐면 아버지 자신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임해 내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겨 받아 마지막까지 견디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주려고 자주 시도할지라도 너희는 너희가 빛과 축복의 나라인 영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를 절대로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항상 단지 가장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말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전적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 인간 예수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그는 인간으로써 고난을 당했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충만한 죽음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신성과 하나가 되었다. 왜냐면 사랑이 마지막까지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모르고 있나이다."

사랑이 조용히 처신하면, 이렇게 하는 일은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가 세 번째 날 무덤으로부터 부활하기 위해 그의 육체가 무덤에 놓일 수 있게 하는 일이 구속사역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들이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심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의 나와의 연결을 깨달았을 것이고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강제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에 대한 믿음은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너희의 영을 영원한 아버지의 영과 하나로 만들 때 이것이 너희 안에서 밝게 될 것이고 너희는 내가 이제 항상 너희 혼의 성장 정도와 사랑의 정도에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너희에게 설명해 주려고 시도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구속사역이 너희에게 순수한 진리를 전해주고 이를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내 큰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내 사랑이 너희 사람들과 너희 죄짐을 위해 이 땅에 임했고 내 큰 사랑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너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 주고 너희의 큰 죄짐을 속죄해주기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왜냐면 너희의 큰 죄짐이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영원히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다 이루었다.

B.D. No. 7668

1960년 8월 7일

너희 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게 한 분이 진실로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는 역사를 완성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이제 다시 나에게 귀환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했다. 나에게 귀환은 한때 나를 떠나 깊은 곳으로 타락한 원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나 자신이 인간의 겉형체 안에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것을 내가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하고 내가 영원으로부터 사랑 자체이고 이 사랑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항상 또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모든 깊이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을지라도 너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단지 인류가 자신의 엄청난 죄를 깨닫고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죄를 남김 없이 해결하기 위한 단 일회적인 역사이고 단 일회적으로 남게 될 특별한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게 일어났고 죄를 남김 없이 해결하는 일이 이뤄졌다. 이로써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죄짐으로부터 그가 자유롭게 될지는 단지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은 모든 시간을 위해 완성되었고 이 역사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이 역사는 한 때 타락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구속을 위해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들을 영접했기 때문이고 나 자신이 내 사랑 때문에 죄를 용서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공의 때문에 죄에 대한 속죄를 행했다. 인간의 걸형체인 예수가 견뎌야만 했던 끔찍한 정도의 고난은 나에게 속죄로 충분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안의 사랑이 그를 돕지 않았으면, 인간 예수만으로는 이런 정도를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이런 구속역사가 단지 일회적이고 일회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구속역사의 구속하는 효력은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직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론될 것이다.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일이 항상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진실로 어떠한 다른 속죄의 제사도 필요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모든 시간을 위해 이 역사를 이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만족해야 하고 너희의 관점을 내 구속사역에 부합될 수 없는 사탄적인 역사로 돌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내 구속사역이 절대로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축복의 길로 가르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의 구속을 방해하기 원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깨닫고 인정하기 원하는 나를 떠나게 하려는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내 대적자는 빛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자신을 소개하는 법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너희에게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인 그를 잘 알고 그의 원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올바른 생각을 구하고 모든 영적인 위험 가운데 도움을 구하면, 너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올바른 길로 인도받고 이로써 너희의 구속이 분명해질 것이다. 너희는 선명하고 확실하게 너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 것이고 어떻게 어디에서 너희에게 위험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죄로부터 너희를 구속했다. 왜냐하면 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이다. 이런 속죄를 행한 일이 내 대적자에 의해 약화될 수 없다. 그러나 내 대적자는 항상 역사해서 너희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게 하려고 너희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의심하

기 시작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종말의 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잘못 된 길로 인도하려고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 안에서 강해야 하고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고 육체와 혼의 모든 고난과 위험 가운데 이제 너희의 아버지인 나를 부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행한 속죄.

B.D. No. 6605

1956년 7월 25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죄를 짊어 졌다. 비록 인간 예수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순결하고 가장 죄가 없는 존재였지만 인간 예수가 너희 인간들을 위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그는 너희를 위해 고통을 받았고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이런 한 인간의 희생이 사랑으로 드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존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큰 사랑으로 이런 공의에 대응했고 이런 큰 사랑이 연약하고 짐을 진 형제들에게 향했다. 형제들은 혼자서는 더 이상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엄청난 죄를 갚는 데 필요한 고난을 감당하고 견딜 힘을 모을 수 없었다.

그는 인류가 고통당하는 고난을 깨달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린 죄와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대항한 큰 죄를 속죄하려면 초인적이 되어야만 하고 단지 이런 큰 죄짐과 동등한 사랑의 역사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그런 사랑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면 이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역사를 성취시키는 일에 필요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한때 타락한 그의 형제들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는 불행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이런 사랑으로 그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위해 드린 그의 희생을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 예수의 사랑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 왜냐면 예수는 대적자의 모든 유혹을 이겼기 때문이고 대적자의 유혹은 예수가 자기 사랑을 우선시하게 하는 유혹이었지만 그러나 인간 예수는 전적으로 이타적이었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항상 단지 이웃의 큰 위험을 염두에 두고 그러므로 그들을 돕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사랑이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리게 했고 이런 사랑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의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게 했다. 그러므로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를 회피하지 않았다. 속죄가 사람들 자신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에 의해 이뤄졌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같은 단계에 있지만 그의 아주 큰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께 향하는 다리를 놓았다.

하나님 자신이 이제 이런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을 수 있었던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왜냐면 예수가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이고 또는 사랑 자체가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조물들의 죄를 속죄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짐을 해결했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피조물을 가장 깊은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허락했다.

한때 하나님께 대적인 죄가 아주 커서 사람들이 스스로 속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 이런 사랑이 이제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고 유일할 수 있는 긍휼의 역사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을 위해 행해진 이런 사랑의 역사를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어느 누구도 그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아무리 크고 고통이 클지라도 스스로 자신의 엄청난 죄짐을 속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이 단지 구원하고 사랑이 너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했고 사랑이 유일하게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한 너희의 구세주이다.

아멘

예수의 피를 통해 죄짐을 해결.

B.D. No. 8349

1962년 12월 6일

너희 모든 사람은 내가 창조한 영들이 한때 타락했던 아주 큰 죄를 나에게 속죄하기 위해 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들이 예수 안에 임한 나와 내 사랑에 관해 전하게 했다.

왜냐면 사랑이 이런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 제자들은 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항상 또 다시 나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먼저 내 신적인 사랑의 계명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만 한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설명해 줘야만 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내 말씀으로 양식을 제공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 예수가 드린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알려주라는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한다.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동안에는 이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의로 운 보상을 하기 위해 아주 큰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런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크기를 파악할 수 없음을 말해 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 안에 영원한 사랑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함을 너희가 아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분하다. 이 지식이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자유의지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너희의 죄를 그에게 드리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자신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할 것이다.

나 자신의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된 문제와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의 죽음을 당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한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위에 구속사역의 은혜를 영접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영원히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존재를 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선택한 내 일꾼을 통해 내가 항상 단지 노력하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린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아야만 한다. 그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다. 왜냐면 그는 이 죽음을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유의지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갔고 이 길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사람들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의 구속사역을 통해 사함을 받았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너희는 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이런 구속사역을 영접하기 위해 단지 너희의 자유의지 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죄로부터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받은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 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고 의식적으로 그는 마지막 길을 갈다.

왜냐면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가야만 한다. 너희에게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구속이 주어질 수 없다. 한 사람이 이런 가장 힘든 희생 제사를 드렸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고난을 당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전적으로 내 사랑의 힘으로 채우고 있었지만 인간 예수는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자신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방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그는 단지 인간으로써 고통을 당했고 단지 인간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었고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뒤로 물러섰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예수의 구역 사역과 은혜의 보물을 활용하지 않는 동안에 그들의 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 대적자로부터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피로 구매했다. 그러나 구속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적자는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왜냐면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큰 제사가 드렸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이에 관한 지식을 보내 주면 너희는 이를 전파해 야 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너희는 내 사랑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준 이 땅에서 스스로 사랑의 삶을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사랑의 역사를 완성했던 나에 대해 말해야 한다.

왜냐면 그는 영원으로부터 너희는 그로부터 떨어져 있게 만든 너희들 스스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너희의 죄로부터 구속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길은 만약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가 이 길로 너희를 따라올 수 없고 따라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왜냐면 그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타락한 일은 사랑을 통해 속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다. 무임을 받은 존재.

B.D. No. 2331

1942년 5월 11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다. 즉 악의 권세를 꺾었다. 악의 권세가 사람의 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었고, 악의 권세에 패배하는 일은 그의 혼에게 죽음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악의 권세에게 완전히 순복해야만 하는 혼들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발산을 받는 영역 밖에서 거했고, 이로써 완전히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되었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모든 힘을 받지 못하게 되야만 했기 때문이다.

죽음의 상태는 고통의 상태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소멸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는 아직 악한 권세에 복종해야만 하고, 존재가 아직 빛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모든 존재를 압박하면서, 항상 악한 권세의 뜻대로 행해야만 하고, 단지 악을 행할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선한 충동을 갖거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악한 일을 행할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은 완전히 부족하여, 비록 혼의 의지가 선으로 향하기를 원할지라도, 혼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모든 인류는 이런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의 대적자의 권세가 너무 커서, 인류의 의지를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했고, 고귀하게 되고, 선하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뜻을 수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두움의 세력이, 그에게 단지 가능한 곳에서, 끊임 없이 그들을 억압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어두움이 승리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권세에 묶여 있는 피조물들에 대해 권한을 항상 더 많이 얻었고, 그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죽음과 어두움이 그들의 운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세력에 맞서 싸웠다.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저항했고, 대적자가 정복할 수 없었던 더 강한 의지로 저항했다. 그는 이 땅의 삶에서 이미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 땅의 삶이 사랑을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발산되는 영역에 있었고, 하나님의 힘을 측량할 수 없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사람들이 혼의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야하는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죽음을, 즉 의지가 속박을 받는 상태를 극복했다. 이로써 의지를 결박한 자를 이겼다. 그는 대적자의 의지에 굴복함으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인 죽음과 힘이 없는 상태를 극복했고, 힘이 없는 상태로 인한 존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극복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자유롭게 않은 상태에서 구속하기 위해, 어두움의 권세가 승리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준비를 하면서 구속의 사역을 완수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종속시켰고, 이로써 대적자의 모든 권세를 빼앗았다. 그는 대적자를 이겼고, 이로써 혼의 죽음을 극복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극복.

B.D. No. 4614

194년 4월 14일

세상은 죄로부터 구속되었다. 사람들이 이런 큰 은혜를 의식하게 되면,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해야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은혜를 활용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구한다면, 이 은혜가 말할 수 없게 어려운 운명을 피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사람들은 이런 구속역사에 대해 거의 주목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웃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했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했고, 죽음을 이겼다. 그는 그의 사랑이 사람들을 위해 드린 희생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그가 구속역사를 통해 장벽을 허물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구속역사를 통해 장벽을 허물은 일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그는 죽음을 극복했고, 그러므로 묶임이 풀어지게 되었다. 한때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의 의지는 대적자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 성취한 구속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필요한 도움을 청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고, 사랑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중보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자신에게 준 해야할 일을 행하고, 이로써 그는 자신을 죽음의 묶임에서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의 말을 듣는 일은 그의 혼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했다. 그는 인간이었고 또한 인간으로써 죽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한 그의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그가 선택한 가장 끔찍한 죽음을 자신이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람의 고난과 죄짐을 생각하고, 죄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였던 그들의 운명을 쉽게 해주기 원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대적자를 극복했다. 하나님은 희생을 받아들였고,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의 은혜와 중보를 구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 희생제사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는 일이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는 일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없게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 후에 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의 혼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제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역사를 완성했다는 것으로 승리해야 한다. 왜냐면 죽음이 이제 죽음의 공포를 잃었기 때문이고, 영의 나라에서 깨어남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구세주께 드리고, 그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고, 구속역사의 은혜를 받기를 구하고, 인간 자신이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로써 지었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에 대한 권세를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이룬 인간 예수의 사랑을 의식하게 되면, 그는 기뻐하고 환호해야 한다.

아멘

예수를 통한 의지의 강화와 능력의 제공.

B.D. No. 7762

1960년 12월 2일

나는 너희가 너희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하기에는 너희 혼자 힘의 너무 연약함을 너희가 항상 생각하게 해줘야만 한다. 너희는 초기에는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가 연약하게 머물고 너희에게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향하게 할 능력이 너희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먼저 강하게 돼야만 한다. 단지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지를 강하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은혜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때 나를 떠난 타락으로 말미암아 너희 자신을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에게 받쳤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구매하지 않았으면, 내 대적자는 절대 스스로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 자신이 원하면, 대적자는 너희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다. 너희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능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위해 강한 의지와 능력의 제공이 필요하다. 너희는 이런 의지를 나에게 향하게 해야만 하고 내 의지 아래 두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내 뜻을 하나님의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육신을 입을 당시 너희의 상태는 빛과 능력의 상태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원래 상태를 나와 너희와의 관계를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영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연약한 피조물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구속사역을 통해 너희에게 충만하게 제공되는 능력을 너희에게 제공해주지 않았으면, 너희는 절대로 이런 부족한 상태를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없고 너희는 절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무능력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에게 나에게 향하는 길을 밝혀 주기 위해 너희가 스스로 원하면, 너희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를 위해 단지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단지 예수 안의 나에게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도움을 주기를 너희가 높은 곳으로 향할 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해주기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너희 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는 성취될 것이다.

구속사역을 믿는 가운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의 결과인 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로써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나 자신을 다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이런 구속역사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 자신을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분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만약에 너희가 그에게 향하는 길을 진실로 너희를 그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였을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남게 되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의지를 강하게 해줄 수 있다.

B.D. No. 8468

1963년 4월 14일

내가 너희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은혜의 역사로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 너희가 인간 예수가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얻은 은혜를 활용하게 아무리 자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한다 할지라도 충분 할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희는 구속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원수이고 원수로 남을 그에게 사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의 축복을 원하지 않고 단지 너희를 멸망으로 이끌어 드리기를 원하는 자의 권세에 계속 묶여 있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도 한 때 나로부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전혀 없다. 왜냐면 너희가 내 사랑을 비추임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를 나로부터 타락하게 만든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절대로 내 사랑의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면 능력을 받기 위해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비추어질 수 있게 자유의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너희는 이런 의지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는 아주 연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했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진지하게 이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그가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해 주시기를 구하면, 너희를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이상 불가능 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외에는 너희가 처한 위험 가운데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면 예수는 너희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이다. 너희는 그에게 너희가 존재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왜냐면 예수와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인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의 예수의 형체 안에서 너희 사람들을 위해 구속사역을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 사람들을 위한 구속사역이 볼 수 있게 이뤄졌고 너희는 이제 너희의 죄짐을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들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 스스로 구속되길 원하면, 너희 스

스로 나를 대적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예수 안의 나 자신에게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면, 너희는 단지 너희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너희의 원수에게 대항할 능력을 스스로 갖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내 십자가의 죽음 후에 너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에게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그가 너희를 위해 죽었기를 구하면서 너희가 단지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넘치는 은혜가 너희에게 제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죄는 예수의 피 때문에 진실로 사함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친다면, 너희는 절대로 너희가 지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너희는 거절할 수 없이 너희를 바닥을 향해 짓누르는 너희의 죄를 계속 지고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대적자에게 빠져 있을 것이다.

너희는 계속해 어두움과 무능력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떠한 영적인 승리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내 대적자가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 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힘이 자신에게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이 단지 예수와 그의 이 땅의 사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너희가 단지 너희의 위험 가운데 도움을 받기 위해 너희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려는 의지를 갖게 되면, 너희가 단지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인간이 된 너희들과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 그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혼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연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으로 존재하게 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한 때 너희들과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 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가 이 땅에서 산 이유와 그의 고통의 총명한 사명의 이유가 무엇 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러나 너희가 이 은혜를 단지 영접하고 활용하기 원하면, 너희에게 제한이 없이 제공이 되는 은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한때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의 영인 루시퍼가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도와서 이런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올라오게 한다.

그러나 타락할 당시에 너희는 타락하게 강요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현재 돌아오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자유의지가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에게 향하게 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도 그의 능력과 권세를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스스로 다시 빛과 능력이 총만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너희에게 빛과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단지 그를 인정하면, 다시 말해 그 안의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는 모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큰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는 이런 존재들에게 자신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다. 그들이 자신의 원죄의 짐을 진 상태에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들의 아버지의 집에 고향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어떤 존재도 이 길을 가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고 존재가 자유의지로 예수를 따라야만 한다. 그는 십자가의 예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구속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유의지로 내 대적자로부터 떠나야만 한다. 그가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완성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모든 혼들을 위해 구속의 대가를 지불 한 하나님의 구세주에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대적자는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는 모든 혼들을 자유롭게 놓아 줘야만 한다. 혼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게 하기 위해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드렸고 그의 피로 모든 혼들을 자유롭게 구매했다.

이런 공훈의 역사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지나쳐 버리고 이 땅에서 그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무르고 예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속하기 위해 죽은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멘

사랑의 불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B.D. No. 6994

1957년 12월 15일

어는 누구도 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영의 능력이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내 일부분인 그 안에 영의 불씨가 내면으로부터 그에게 지시하고 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항상 또 다시 도움을 청하여 그가 동시에 나와 함께 그를 영원으로 부터 묶고 있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혼이 자유를 갖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자유롭게 해주는 일은 나 자신이 너희 사람들을 위해 인간 예수 안에서 완성한 구속사역을 통해 가능하다.

내 대적자로부터 너희가 구속을 받기 위해 이제 단지 너희의 고유의 의지 만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자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잠자고 있는 영의 능력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안의 영이 생명으로 깨어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영은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인도한다. 왜냐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내 사랑의 영의 가장 작은 불씨를 너희 안에 넣어 주어 구속사역이 성공하게 했고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헛되지 않게 했다. 단지 한 가지 사랑의 행위가 너희 안에 영을 이미 깨어나게 한다.

영은 계속하여 사랑을 행하게 너희에게 자극하면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면 너희는 쉬지 않고 너희를 나에게 이끄는 영의 능력을 감지하고 느끼게 돼야만 한다. 너희가 단지 영의 능력을 활용하면,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구속을 받는 일이 너희에게 성공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가 진실로 거부하지 않을 능력을 나 자신에게 구하기 때문이다. 모든 나와 연결은 기도를 통한 것이나 또는 사람을 행하는 일을 통한 것이나 너희에게 항상 나로부터 나온 능력을 줄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 항상 더 많이 나에게 머물 것이다. 너희의 위를 향한 추구는 분명할 것이다.

너희 모두가 영의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가 너희 안에 나로부터 나온 이런 사랑의 불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단지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기 원하기만 하면 된다. 이 불씨가 단지 너희에게 표현하기 원하면, 너희는 이에 저항하지만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심장의 작은 자극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이 자극을 따라야 한다.

왜냐면 영의 불씨는 너희에게 항상 사랑을 행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자극을 따르면, 영의 능력이 항상 더욱 확산될 것이다. 너희는 빛의 생각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해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안에서 영의 나라와 연결을 이루려는 강한 자극을 느낄 것이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갈망은 줄어들고 영적인 갈망은 더 많이 우선이 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인 나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의 생각은 높은 곳의 나에게 향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영을 통해 너희를 인도한다. 왜냐면 너희 혼자서는 어떤 것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고 너희 의지를 실행하는 일은 예수의 구속사역이 이룬 일이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너희 사람들을 위해 먼저 강한 의지를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너희에게 구매해주었다.

이 모든 은혜는 너희가 도움이 없이는 저항하기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의 연락함 가운데 너희가 내 대적자에게 대항하게 돕는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역은 사람 안의 영이 쉽게 자유롭게 될 수 있게 역사하고 단지 아주 작은 사랑하려는 의지가 사람 안의 영이 역사하게 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수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에 있게 고백할수록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할수록 사람 안의 영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구속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왜냐면 내 영의 능력이 이제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시 빛과 능력이 없는 너희 이웃들의 축복을 위해 빛과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일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게 도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너희의 원수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원수의 일부분인 동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의지가 아직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향하지 않은 동안에는 너희가 원수에게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세주는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할 때 원수를 너희로부터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안에 나 자신의 일부분인 영의 불씨는 너희가 영의 불씨가 일하게 허용하면, 너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도움을 청하게 재촉할 것이다. 영의 불씨는 심장을 통해 너희에게 말하고 사랑을 행하게 자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리고 영의 불씨에게 어떠한 강요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항상 도와줄 준비되어 있다. 왜냐면 연약하고 구속받지 못한 존재들을 향한 내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언젠가 이런 존재들을 나를 위해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

B.D. No. 7950

1961년 7월 26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너희는 구속을 받았다. 이 구속으로부터 모든 우주의 어떠한 존재도 제외되지 않았다. 왜냐면 그는 그의 역사를 한때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역사를 완성했다.

그러나 존재 스스로 이 역사를 인정해야만 한다. 의식적으로 구속사역을 활용해야만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는 자유의지로 자기를 깊은 곳까지 따랐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존재들은 자유의지로 대적자에게 향했고 하나님을 떠났다.

존재는 자유의지로 그로부터 다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존재들은 그를 떠나기 위한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의지가 대적자에 의해 전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존재들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머물렀을 것이다.

예수는 구속사역을 통해 그는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해 타락한 자들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어서 존재들은 이제 대적자에 대항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되었다. 구속사역을 통해 어떠한 존재도 귀환하게 강요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은 그가 귀환하게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귀환은 영원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환을 위해서는 항상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순식간에 구속을 받았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창조의 작품들은 이미 영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속은 한때 타락한 영의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자유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게 만들어 졌다.

만약에 그가 예수의 구속사역과 그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면, 그의 구속은 확실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출처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헛되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게 된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저세상에서 성장해 나가서 다시 빛과 능력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역사할 수 있다.

그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의지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를 위해 죄를 속죄했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를 위해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예수가 빛의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 스스로 구속역사가 자신을 위해 완성되었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어야만 한다. 그는 예수를 자신의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이런 구속역사의 축복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구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그의 큰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 스스로는 자신의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해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영의 존재들이 구속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는 모든 타락한 영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당했고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은혜를 구매했다. 이제 모든 존재가 인간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진 단계에 스스로 다시 도달하게 하면, 이 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너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주 행복하게 해주는 지식이다.

왜냐면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에게 너희 아버지의 집의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절대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나 너희에게 전적으로 구속을 보장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는 구속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절대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죄짐이 너희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는 이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죄를 십자가 아래로 너희의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린, 이로써 너희를 하나님의 대적자로부터 구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갈 수 있다. 단지 너희의 의지가 은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 너희는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너희는 단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를 완성시키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사랑을 행하는 것을 통해 너희의 성품을 다시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가장 긴밀하게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너희의 혼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의 자녀로서 이제 빛과 축복에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B.D. No. 1434

1940년 5월 24일

세상은 모든 죄에서 구속될 것이다. 주님이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세주를 예고했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의식에서 구속을 약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이 약속을 성취했다. 그러나 세상은, 즉 사람 자신은 이 구속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주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는 먼저 자신을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는 구속 사역의 은혜를 받아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 은혜는 긴밀한 기도를 통해 강하게 된, 모든 것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의지이다. 즉 실천할 수 있는 의지이다. 이전에는 의지가 이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단이 없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죄짐으로 인해 저항하기에는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적자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가 이 권세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기도를 통해 의지가 강해지기를 구해야만 한다. 사람이 동시에 사랑의 존재로 자신을 형성해야만 한다. 이일은 단지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 왜냐하면 단지 사랑을 통해 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속되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 서야만 한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추임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인간은 위대한 공훈의 역사를 시인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고, 주

님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그는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는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예수님께 그의 중보기도를 간청하는 사람은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는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아들 때문에 모든 죄짐이 해결되야 한다. 아버지의 아들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이 보장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모든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은 또한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구세주 자신이 그에게 제공하는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통해 자신을 구원한다. 그는 구속의 사역을 시인하고, 아주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아주 큰 죄를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다. 그는 간청하면서 두 손을 들어 그리스도께 긍휼을 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죄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인류를 향한 구세주의 사랑의 역사의 규모는 인간이 하늘의 기쁨과 저세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생각할 때, 즉 구속받은 상태와 묶임을 받는 상태를 상상할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있고,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저세상의 혼들을 고통에서 살리기 위해 예수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게 한 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측량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주님의 구속 사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지어 논쟁을 벌이는 경우, 사람이 스스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속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자신을 제외시킨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의 선물을 주었고, 그가 이를 거절한다면, 저세상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닥치는 일은 그 자신의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어떤 존재도 구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의지가 아주 오래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자신이 이 의지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의지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해결이 되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의지가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이 없이는 대적자의 권세가 너무 커서 사람이 혼자서는 절대로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는가.

B.D. No. 8280

1962년 9월 23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칠 수 없음을 너희가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원하면, 너희가 언젠가 빛과 축복의 나라에 다시 영접되기 원하면,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해야만 함을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알려줘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아야만 한다. 왜냐면 그 자신이 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위해 고통을 당했다. 그는 너희의 원죄 때문에 고통이 극심한 죽음을 당했다.

너희가 그의 구속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한때 하나님을 떠났던 큰 죄짐을 지고 구속되지 못한 상태로 저세상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자유의지로 그가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구속해 주기를 의뢰하며 그를 부를 때 그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의 죄짐을 벗게 해주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죄가 너희를 붙잡고 있어 너희가 성장하기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너희가 먼저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만 한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는 더욱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속이 없다. 그러므로 이 땅의 너희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의 공훈의 역사를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런 공훈의 역사를 행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 예수 안에 거했고 이 사랑이 예수를 이끌었다. 예수는 사랑하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축복되게 만들어 주기를 원했다. 예수는 이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에 다시 들어서게 돕기를 원했다.

자유의지로 아버지를 떠나가서 이로써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아버지와 격리되어 있었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죄였기 때문에 단지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아버지 자신이 예수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이 죄를 제거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종말 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인간 예수의 큰 공훈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단지 가능한 일을 행해 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 후에게 저세상으로 가는 것은 영의 나라에서 이 혼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찾고 그에게 공훈을 구할 때까지 깊은 어둠을 의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든 혼이 예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혼이 모든 빛의 존재의 노력을 거부하면,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가르침도 영접하지 않으면, 혼들의 이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더 나은 깨달음에 자신을 달한다면, 그의 의지가 위를 향해 있지 않으면, 그의 저항의 줄 어들지 않고 영적인 친구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면 깊은 곳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러면 혼은 그의 원죄의 짐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과정을 새롭게 가기 위해 깊은 곳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다. 이 과정은 굳은 광물로부터 식물과 동물의 세계를 거쳐 인간이 되기까지 모든 창조 작품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자유의지로 그의 원죄의 구속받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의 과정을 가게 되기까지 이제 끝없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예수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 모든 사람이 구속사역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단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예수 안의 영원한 사랑이 희생제사를 드린 예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진리에 합당한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한 지식을 전해줘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를 인정해야만 하는지 왜 사람들이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지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자신들에게 요구하는지 깨달아야만 한다. 사람들에게 영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과정과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타락의 결과를 설명해 줘야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큰 문제를 유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진리를 체험해 그들이 자유의지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고 그러므로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리에 들어서야 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죄악 된 인류를 위해 구매한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는 혼들을 문으로 인도한다. 왜냐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믿고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를 인정하고 죄짐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 마지막 믿음의 결정.

B.D. No. 8866

1964년 10월 11일

너희가 육신에 죽음 후에 너희에게 빛이 충만한 나라의 문이 열릴 것인가는 너희의 자유로운 의지의 결정에 달려 있다. 너희가 나와 연결을 아주 긴밀하게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내 안의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죄와 죽음의 구원자로 깨닫고 너희 자신을 나에게 전체적으로 헌신하는가에 그리고 나 자신과 예수를 더 이상 분리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너희 모두가 너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나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했는가에 달려있다.

빛으로 채워진 나라에서 너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나 자신의 겉형체가 된 예수를 인정하기를 원한다. 나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왜냐면 너희는 교만과 자기 사랑과 모든 부족한 덕성에 대항해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내 대적자가 너희에게 전해주어서 너희가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해서 너희를 깊고도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한 것 들이고 너희가 아직 그에게 속했다는 증거이다.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임할 때 이런 부덕한 것의 대부분이 너희 안에 남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쉽게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해 너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것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덕성이 부족한 것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너희의 의지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이다. 이것 만이 너희의 영원한 운명을 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관한 지식이 단지 아주 연약하여 구속사역을 믿는 사람은 단지 적다. 그리고 자신을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십자가를 통해 얻은 은혜를 활용하고 모든 죄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려는 자는 적다.

이 들은 확실하게 구속을 받게 되고 빛나는 가운데 내 나라의 문을 통과해 들어 갈 것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야만 할 가장 중요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관해 설명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닫아 버린다. 그들과는 영적인 말을 한마디도 서로 나눌 수 없다. 이것은 내 대적자의 역사이다. 그는 종말의 때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들이 믿지 못하게 모든 것을 신화로 여기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또 다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너희 안에서 스스로 빛을 찾기를 단지 권면할 수 있다. 이 빛은 너희가 단지 진지하게 진리를 깊이 탐구하려는 소원이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서 불지펴 줄 빛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에 관해 빛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믿음이 없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빛을 유지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나를 대적할 것인지 결정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이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졌어야만 함을 너희가 더 이상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너희가 전적인 확신 가운데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위해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 단지 작은 자극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해야 할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 전에 마지막 믿음의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게 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고 새로운 파문에 가게 될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항상 알려주고 나와 깊은 연결을 이루게 아직 나를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나로부터 전적으로 멀어지지 않은 비록 그들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한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구속사역을 그들의 눈앞에 볼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이 내가 그들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불지펴줄 올바른 빛을 갖게 자원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내가 진지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아멘

혼의 성장을 이루는 일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속해 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성숙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또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한 분을 인정하고, 그는 또한 그리스도가 인류의 큰 죄짐을 위한 속죄로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없이 긴 포로 생활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음을 안다. 결과적으로 그는 또한 이 위대한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깨닫고, 구속역사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둘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역의 은혜가 비로소 혼을 성숙하게 한다. 왜냐면 구속자 자신이 이제 혼을 높은 곳의 자신에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는 혼에게 옳은 일을 원하고 행할 힘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 머물고, 그는 연약한 상태로 머물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머문다. 혼은 낮은 성장 단계에 머문다. 왜냐면 혼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지혜와 순수한 진리를 깨달을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사랑 없는 사람은 인류의 죄와 죄짐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무지하고, 이 땅의 인간의 목표와 과제에 대해 무지하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그의 삶은 이미 사랑 안에서 사는 삶이고, 그러면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가 그에게는 가장 깊은 사랑의 상징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하고, 세상이 그에게 요구한다면, 그는 또한 세상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그의 혼은 위를 향하고, 또한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다. 왜냐면 혼이 자신의 힘으로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강하게 되고, 혼이 지속적으로 힘과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혼에게 빛과 능력이 충만한 축복을 의미한다. 왜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 모범적으로 산 것처럼, 예수를 따르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영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골고다를 향한 십자가의 길.

B.D. No. 6512

1956년 3월 29일

십자가를 향하는 길은 피하지 말고 가야만 한다. 왜냐면 이 길이 유일하게 너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다. 이 길은 골고다를 향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위해 가신 길이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만든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십자가의 길로 그를 향한 길로 하나님의 구세주의 길로 가려 하면, 그는 분명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그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이 연약해질 때 그의 손을 잡고 돕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축복의 문을 통과하려면, 너희는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너희 자신이 그려볼 수 있게 해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고백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동시에 생각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해야만 하고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머물러야만 한다. 그의 고난이 너희 심장에 전달돼야만 하고 그의 고난이 너희 안에서 사랑이 밝은 화염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너희의 고난이 돼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일이 너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해야만 한다. 이로써 너희는 그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너희가 생명력 있게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가장 큰 영적인 체험에 대해 같은 행함을 요구하는 이런 한가지의 행함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해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자신 스스로 모든 고요함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길에 참여해 그의 죽음까지 동참하며 구원의 역사를 생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너희는 항상 또 다시 이 과정을 생각으로 떠 올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더욱 깊어 질 것이다.

그에게 향하고 그와 함께 하는 이런 십자가의 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면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의 구원사역의 큰 비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의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진정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를 향한 사랑이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더 이상 그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의 구원사역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큰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과정은 단지 이에 대한 말로 머무르지 말고 너희는 너희 안에서 이 과정이 생명력이 있게 해야만 한다. 너희는 그가 견딘 극심한 고난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주 생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는 너희에게 빛을 주고 복된 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그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 자신이 비로소 구원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자의 크나 큰 사랑에 너희의 혼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더 이상 그를 놓치려고 하지 않게 된다. (1956년 3월 29일) 그러면 너희가 골고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치면, 그와 함께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혼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면 혼이 진정한 생명으로 깨어났기 때문이고 혼을 위해 죽은 분 때문에 혼이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또 다시 아주 깊은 내면으로 묵상해야만 하고 사람이 항상 또 다시 그의 사랑의 사역의 비밀을 알기 위해 그의 삶과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왜냐면 그가 예수의 사랑의 사역을 의식하면 할수록 더욱 그의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사랑이 이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재촉한다. 사랑은 십자가의 과정의 고난을 자신이 짊어 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활용하고 동시에 자신이 이에 동참하기 위해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할 자세를 갖게 된다. 왜냐면 사랑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에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야만 한다.

B.D. No. 7717

1960년 10월 1일

너희 모두는 다시 하늘의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 모두는 다시 아버지인 내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는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의 육신 안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 그러나 언젠가 너희 심장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아버지의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영들을 창조할 때 세운 내 목표에 도달한다. 단지 내 사랑이 결정할 수 있으면, 너희 모두는 이미 오래 전에 하늘나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내 자녀들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나 내 사랑은 내 영원한 법을 어기면서 행할 수 없다. 이 법은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나던 존재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때 타락했던 원래의 영인 너희 사람들에게 높은 곳을 향하는 길은 아주 서로 다른 긴 시간이 걸린다. 짧은 시간 안에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여러 성장 시대가 필요로 할 수 있다. 이는 너희에게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고통과 묶임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인간인 너희는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통이 충만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이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미 오래 전에 극복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 가지 않게 너희에게 이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 동안 너희의 인도자로서 나 자신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가장 짧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 주기 위해 순례자의 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한다.

높은 곳에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자는 전적으로 확실하게 나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면, 이로써 너희를 위해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죄를 해결한 그가 너희를 구속하게 하면, 너희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은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피할 수 없이 가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타락하였을 때 공의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던 내 사랑이 다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의는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인간 예수를 통해 충족되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이 대가를 지불했고 공의가 무효화 된 것이 아니다. 왜냐면 내가 인간으로써 넘치는 고난과 고통을 너희가 한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위해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이런 희생제사를 이제 영접해야만 한다. 너희의 의지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의식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스스로 십자가 아래서 죄를 고백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의 긍휼과 그의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는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감쌀 수 있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십자가를 통해 구속했다. 너희가 한번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면,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은 완성에 이른다.

그러면 너희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성장단계 도달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창조물의 과정을 거치는 일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영의 나라에서 항상 더 높게 성장할 것이다. 내 사랑이 너희를 이끌 것이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항상 강해질 것이다.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는 축복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제한이 없고 나 자신을 영원히 선물해 주기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

B.D. No. 9010

1965년 7월 7일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희 인간들에게 결정적인 의미가 있다. 너희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일은 너희가 이 죄로부터 속죄 받으려는 의지보다 먼저 있어야만 한다. 왜냐면 그러할 때 너희는 의식적으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번은 너희가 한때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은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된 이유인 너희의 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진지하게 소원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제 이 죄를 의식적으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놓을 때 너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를 당시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단지 형식적으로 그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행한 것을 즉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고 너희의 죄짐을 위해 하나님에게 속죄 재물을 드린 것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전적으로 의식해야만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영원하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된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너희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구한다. 이 것 만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사랑이 너희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과제를 성취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의 삶은 헛된 삶이다. 그는 본질적인 목적인 자신을 자신의 원초의 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면 그의 죄가 그에게 부담을 주고 만약에 그가 저세상에 갈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세상에서도 그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항상 너희에게 빛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빛에 감사하는 열린 심장과 귀를 가진 사람을 아주 찾기 힘들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세상적인 육신에 안락함을 주는 것만을 갈망하면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

그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확실하게 올바른 깨달음에 도달했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간은 자꾸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단지 아주 적은 사람들 만에게 구속사역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거의 전세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사역이 강조되는 지역에서도 생명력이 부족한 단지 형식적인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구속을 주게 하는 의식적으로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구속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적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야만 함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 단지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전적인 의식 가운데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헌신해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에게 구속역사가 효과를 나타낸다. 사람들이 귀로만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러나 심장은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원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려고 하며 큰 구속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하게 권면하는 일꾼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생명력 있게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사랑이 그들에게 빛을 주고 이 빛이 이제 항상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의 큰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음을 그리고 이 한 분 만이 큰 죄의 값을 치룰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는 이제 용서해주기 위해 제한 없이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의식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요청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가 인정하는 것을 거절해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여기에 큰 비밀이 들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죄인으로 만든 큰 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 죄를 구속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B.D. No. 5428

1952년 7월 4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라. 너희 사람들은 아직 서로 적대감을 너무 자주 허용한다. 너희는 아직 너희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고 원수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는 아직 원수들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너희가 악한 일을 바라는 일을 삼가 할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일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는 필요한 인내를 행하지 않고, 너희가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낸다. 그러므로 아직 전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 너희 안의 사랑이 더 이상 적대적인 생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을 정도로 아직 권세있게 되지 못했다. 너희는 이웃을 형제로 보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을 것이고 그렇게 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그렇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너희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크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진지한 요청이 너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내 용서를 얻기 원하면, 너희의 채무

자들도 용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야만 한다. 너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런 결심을 위해 너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조건을 내세워야만 한다. 너희는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고, 이웃의 죄를 오랜동안 용서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모든 적대적인 생각은 응답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데 적합하지 않은 반면에 원수에게 행하는 사랑은 원수 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사람을 향한 모든 불쾌한 생각은 악의 세력이 흡수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좋은 일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면 악은 단지 악을 낳고 그러므로 항상 단지 악이 반응하고, 악의 힘이 빠르게 증가되어 단지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을 선으로 대항해서, 악을 약하게 하고,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꿔야 한다. 너희는 좋은 생각을 보내야 하고 또한 너희의 원수들에게 단지 좋은 일을 기원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를 통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고, 좋은 생각은 속죄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즉 원한과 증오를 달래고 다시 좋은 감정이 깨어나게 하고, 심지어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의 힘은 항상 선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빛진 사람들을 용서하면, 너희가 나에게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희 자신이 적대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직 엄격하게 판단하는 적을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어떻게 관대할 수 있느냐? 내 사랑이 너희 죄를 용서한다면, 너희의 사랑이 관대하게 행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원수에게 선한 생각을 하고, 너희에게 모욕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항상 너희 안의 사랑이 판단하게 하라. 사랑은 확실하게 용서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증오와 복수의 느낌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 자신이 있고, 나는 진실로 사랑이 없이 판단하지 않고, 너희가 너희의 죄인을 용서할 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사랑의 빛의 정도.

B.D. No. 7660

1960년 7월 30일

너희는 영원한 평안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모든 부족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염려와 고통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너희 주변이 빛이 충만해지기 때문이다. 너희 형편이 축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혼의 성장에 도달해야만 한다. 너희는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속하게 돼야만 한다.

너희는 한때 너희를 생성되게 한 아버지에게 귀환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찾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죄짐으로 자유롭게 되지 못하고 그러면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너희에게 닫힌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죄짐에 대해 용서받기를 추구해야 한다.

너희가 아직 예수를 믿을 수 없거든 예수에 관한 설명을 구하라. 너희가 생명력이 있게 그를 믿을 수 있기 위해 이로써 스스로 너희의 죄짐을 가지고 그의 십자가 아래로 가서 그에게 용

서를 구하게 나 자신이 너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기를 나 자신에게 구하라. 너희는 모든 죄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빛의 나라에 들어 가는 일이 보장 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 후에 전적으로 서로 다른 빛의 정도에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이는 너희의 혼의 성장 정도에 너희 혼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너희가 어떻게 내 뜻을 성취시켰는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희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너희의 성품을 사랑으로 바꾸었는지에 달려 있다. 사랑의 정도만이 너희 혼의 성장을 정한다. 너희를 대신해 사랑을 행할 수 없다.

사랑은 영원한 질서의 법칙이다. 너희가 원래의 성품을 덧입기 위해 너희에게 정해진 바대로 내 형상이 되기 위해 이 법칙대로 너희는 살아야만 한다. 사랑이 된다는 것은 너희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고 모든 저속한 욕망과 싸우고 너희 성품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들고 평화를 구하고 긍휼이 있게 공의롭게 인내심이 있게 만들고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버리고 항상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로 깨닫는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허물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혼은 금강석처럼 선명하게 되고 영의 나라에서 혼에게 축복을 의미하는 빛의 비추임을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혼은 죽음을 죄를 부족함을 더 이상 알지 못할 것이다. 혼은 순수하고 순결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까이에 있기에 합당할 것이다.

혼은 나를 대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혼은 그들의 구세주인 내가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한때 그들이 소원한대로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한때 측량할 수 없이 축복되기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너희 자신을 사랑으로 바꾸는 일을 이 땅에서 이뤄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전에 너희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구해야 한다.

왜냐면 죄짐은 너희를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고 죄짐을 가지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어렵다면, 너희를 생명으로 생성한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너희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너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기를 그에게 구하라.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나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무지 가운데 놔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진리를 그가 영접할 수 있게 전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평화와 축복의 나라의 영접을 받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가 한때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너희가 자유의지로 떠나서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된 나를 깨닫는다.

너희는 이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와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죄짐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죄는 용서받는다. 인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 자신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 너희가 자유의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 너희를 다시 원래 초기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바꾸는 일이 너희의 뜻이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성장하게 너희를 돕는다.

아멘

죄의 짐. 용서. 구속. 그리스도의 십자가.

B.D. No. 3335

1944년 11월 19일

구속 역사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의 구속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고, 그는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과 죽음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느낀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굽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인 혼이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삶의 싸움에서 대적자에게 시험 받거나 또는 잠시 대적자에게 눌린다면, 항상 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도피한다.

왜냐면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항상 능력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이 죄를 짓고 깊이 후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오면, 항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다. 왜냐면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모든 시간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의 은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모든 죄는 자신이 모든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속죄를 이룬 분에게 전가된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너무 커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와 연결된 사람만이 항상 잔지 이를 이해할 수 있고, 항상 단지 믿음을 통해 자신을 그와 연결시킨 사람만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위험은 아주 크고, 종종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왜냐면 인류가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그에게 피하지 않고, 자신이 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 짐을 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의 죄짐은 상쇄될 수 없고, 항상 커지고,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짓누른다. 이 짐은 너무 커져,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이 이 짐으로 기절하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자신이 죄로부터 구속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짐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그의 죽음으로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제물 때문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기에 충분한 속죄를 하나님께 드렸다. 왜냐면 그는 가장 순결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죄도 없었고, 그러므로 그의 제물은 인류의 모든 죄를 보상했다.

그러나 그의 속죄 제물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그들이 속죄의 제물로 얻은 은혜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자신의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없을 것이다. 죄는 사람을 아래로 떨어지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람을 다시 끌어 올린다. 죄는 혼의 죽음이다. 그러나 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다시 살아난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가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는 죄로 인해 잃었던 영생을 다시 찾는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죄사함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죄사함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신음해야만 한다.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아주 엄격하게 자신을 훈련하고 순수한 삶을 살지라도, 그에게는 그가 이 땅에서 살게 된 총괄적인 원인인 전에 하나님을 거절한 죄가 남아 있다.

이 죄 때문에 그의 의지가 연약해져, 그를 죄짓게 만들려는 세상적인 유혹과 시험에 대항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가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처한 깊은 위험과 연약한 의지를 알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렸다. 왜냐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했고, 사랑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사랑은 항상 구속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멘

죄사함의 역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B.D. No. 4166

1947년 11월 14일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영적인 전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죄를 사해주는 의식을 단지 형식으로 여길 수 있다.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 그가 또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짐을 벗게 한다. 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를 위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죄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무리에 속하려는 의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회개와 즉 죄를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겼다는 깨달음은 죄사함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계속되는 전제 조건이다. 사람은 실제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입으로 회개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죄짐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 이로써 그가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게서 죄짐을 벗겨 줄 수 없다. (1947년 11월 13일)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짐이 그를 짓눌러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죄 가운데 머문다.

그러나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언급할 이유가 없다. (1947년 11월 14일)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그가 겸손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런 공개적인 고백과 그가 죄를 용서받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대로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

다." 너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 혼이 성장해서 그들이 꿰뚫어 보게 되었고, 귀가 밝아지게 된 자신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생각하지 않는다.

게다가 예수는 죄의 결과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 말했고, 제자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한 죄인들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그들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기를 구하게 만든 죄에 대해 말했다. 이를 통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한 후에 일반적으로 죄를 용서받는 의식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다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변형시킨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죄사함이 달려 있다고 믿고, 죄의 고백이 자주 형식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깊은 내면의 후회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일과 죄를 혐오하는 일과 진지하게 개선을 향한 갈망하는 일이 단지 사람의 심장에 연약하게 영향을 미치고, 죄의 용서는 단지 유일하게 이런 요소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내면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하나님을 향해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고해성사는 단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추가한 계명이다. 그러나 이 계명은 아주 강한 관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모순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외적인 것들이 진정한 내적 헌신과 전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계명대로 사는 일로 완전히 대체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외적인 요소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적게 관심을 갖고, 단지 인간이 추가한 요구에 관심을 갖는다. 이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혼에 대한 작업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다.

깊은 회개의 결과인 죄를 혐오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이런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 사람들의 영적인 퇴보를 증명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지 않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꼭 일어나게 된다. 죄사함의 의식을 진정한 의미대로 만들고, 항상 각 개인의 내적인 일로 만든다면, 사람이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자신을 양육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되게 죄의 용서를 묘사하는 일이 또한 자원하는 사람을 미지근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진정한 긴밀함이 가치가 있고, 모든 겉형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아멘

인내와 복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

B.D. No. 1806

1941년 2월 11일

인간이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그가 이 땅의 목적이 자신의 혼을 높이 성장하게 하는 일임을 깨달은 시간부터 그의 이 땅의 길은, 자신을 극복하고, 이웃 사랑을 행함을 통해, 영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끝없는 일련의 기회이다. 그러므로 그 순간부터 그의 이 땅의 삶은 곧 그가 자신을 증명해야 할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일도 더 이상 싸움 없이 그를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바로 싸움을 통해 그의 의지가 강해지고 그의 힘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의 삶은 방해받지 않고 삶의 기쁨에 빠지는 삶이기 보다는, 저항과 고난으로 이뤄진 삶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의 작은 생명선이 좌초해서는 안되는 첫 번째 암초이다. 그는 확실한 손과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모든 암초 주위로 생명선을 인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 영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위한 가능성을 활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친히 사람들에게 과제를 부여했다.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그의 십자가를 거두어 드리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십자가를 줄여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부과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말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짊어진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인류의 죄짐에 대한 속죄였다.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러므로 그가 인류를 위해 참은 일은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속죄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류가 죄를 통해 그들 자신에게 가져온 고통을 마찬가지로 감당해야만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도록 움직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고통을 통해 죄짐을 줄여주고, 이로써 이 땅에서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항상 구원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혼이 큰 죄짐에 얽혀 있는 그들의 노예 상태에 대해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십자가를 부과하고, 그의 이 땅의 삶을 더 이상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나가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싸움이 없이는 혼이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 이웃 사람보다 분명하게 더 힘들 때, 낙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십자가를 더 쉽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사람이 의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의 공급이다. 그러나 이런 힘의 공급은 또한 요청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면 아무리 무거워 보이는 모든 십자가가 더 이상 이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불평이나, 반발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낸 모든 것에 복종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저항이 하나님의 힘의 역사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생명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 땅에서 이미 구속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 어렵게 투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단지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영적 완성에 도달하기를 원하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인, 모든 인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 하나님 구세주를 따르기를 원한다.

아멘

갈보리로 가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일.

B.D. No. 5791

1953년 10월 16일

고고도로 가는 길을 걷는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다.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이 길을 걸었고,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짊어졌고 이로써 너희를 대신해 스스로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은 너희가 가진 올바른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너희 죄를 구속했다. 그의 이 땅의 삶의 정점은 영원한 아버지와 연합이었고, 그는 아버지와 영원히 연합했고, 그와 아버지는 하나가 되었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은 또한 고통스러운 이 땅의 삶을 짊어져야 하고, 마지막까지 이 땅의 길을 인내하며 가야만 하고, 아무리 큰 고난과 아무리 큰 환란과 궁핍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잔을 마지막까지 마셔야만 하고, 항상 단지 그가 또한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연합되어 있기를 원하는 구세주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추구를 해야 한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에게 힘이 제공될 것이고, 사람이 연약해지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곁에 서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가 그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십자가를 지도해 준다.

너희는 이제 경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주 고통과 질병으로 핍박을 받는 이유와 왜 그들에게 거의 견딜 수 없게 보이는 십자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자녀권 때문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때문이다. 이런 연합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에 거하는 가운데 무한한 힘과 빛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단지 하나님과 전적인 연합이 줄 수 있는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는 이 땅에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즐겁게 느끼는 모든 일을 희생하는 큰 희생을 통해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진실로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야만 한다. 그는 그의 육체가 단지 혼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고난당하는 이유는 혼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깊은 사랑으로 혼을 자신의 자녀로 영접할 수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

르고, 이 땅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아버지가 이제 모든 권리를 가진 자녀권을 그에게 부여한다. 왜냐면 자녀가 이미 아버지에게 돌아 왔고, 이제 또한 이 땅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시험은 모든 창조된 천사가 자신의 창조주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된 가운데 빛의 나라에서 이제 창조하고 역사하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시험이다.

아멘

십자가의 길. 예수를 따르는 일.

B.D. No. 6562

1956년 6월 3일

인간의 이 땅의 삶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면, 그의 이 땅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고 십자가의 길로 머물게 될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는 그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자신을 맡겨 내가 그의 십자가를 넘겨받거나 또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도울 수 있게 되는 경우이다. 그러면 그는 어려움이 없이 위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이미 전적으로 모두 나에게 속하고 그에게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특별한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다. 아직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무거운 짐은 항상 그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징조이고 잘못 된 길은 평탄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있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즐기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하면서 너희를 앞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헛되이 가지 않았다. 너희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너희는 항상 너희가 내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십자가가 너희에게 너무 어렵게 보이면, 단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손을 펼쳐 너희가 아직 부담을 느끼고 도움이 필요한 동안에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울 것이다. 너희가 단지 힘을 요청하면, 나는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이 땅의 길을 단지 혼자서 가지 말라.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 곁에서 함께 가게 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짐으로 쓰러지게 되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내가 언제 너희의 짐이 너희에게 너무 무거운 지를 알고 내가 진실로 너희의 짐을 넘겨받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고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가 이미 자주 너희에게 제공되었고 그러므로 짧은 길이 목표에 도달하게 하려면, 짧은 길이 특별하게 가파른 길이 돼야만 한다는 정보가 이미 자주 너희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주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힘을 요청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힘을 얻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너희가 나에게 힘을 구하면, 너희에게 힘이 제공될 것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한 사람에게 그가 대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고난과 환난을 통해 너희 사람들이 나와 연결을 이루고 너희가 나와 항상 더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도록 자극해주시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러면 모든 일이 너희에게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장 큰 고난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든 고난을 벗어나도록 인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너희 자신과 너희의 힘을 의존하지 말라. 왜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세상적으로 풍성하게 주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너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자에게 너희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자신과 너희의 힘으로는 삶의 싸움

에서 승리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너희의 주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건디라. 왜냐면 십자가가 더 이상 오랫동안 너희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인 반면에 너희에게 아직 남아 있는 짧은 이 땅의 기간을 위해 너희가 그런 주님에게 다시 끝없이 긴 시간 동안 빠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진실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너희의 모든 걱정을 안다는 것을 믿고 비록 내가 또한 뒤로 물러선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희가 단지 나를 신뢰하면 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으라. 그러나 너희에게 고난이 임하는 일은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혼에 관한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혼은 실제 이 땅의 고난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혼이 자신을 나에게 드러 내기 혼을 인도하고 혼이 성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혼에게 주게 만들지 않는 동안에는 혼은 훨씬 더 큰 위험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라. 너희가 먼저 모든 진지함과 열심으로 나와 내 나라를 구하라는 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항상 줄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과 된 십자가가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돕기 원하는 분을 찾게 만드는 일에 단지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

B.D. No. 7773

1960년 12월 15일

너희는 고난과 위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너희에게 단지 축복을 준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에게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면, 한 분이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도울 것이다. 너희는 모든 위험 가운데 이 한 분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는 분이요 십자가를 지는 분으로 남을 것이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간 그는 스스로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그는 자신에게 큰 짐이었고 기절을 했던 그는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왜냐면 그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을 어깨에 짊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다. 이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영원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모든 육신적인 혼적인 위험 가운데 너희를 도와주기를 구하면, 이 사랑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게 돕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위험이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는 복종하면서 실제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고 인내하며 져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분이 항상 너희 곁에 함께 간다. 그는 너희가 짐을 지는 일을 도와 짐이 너희에게 항상 견딜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길을 가면, 이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너희가 너희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막는 많은 불순물들을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라. 고난이 혼의 불순물을 버리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너희에게 비칠 수 있게 되면, 너희가 언젠가 고통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단지 너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너희보다 앞서 십자가의 길을 간, 너희에게 자신을 따느라고 요구하는 분을 생각하라.

그의 말은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다. 만약에 너희가 그의 말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십자가 지는 분을 따르면, 단지 너희 혼을 구원을 받음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그는 너희가 자주 연약하고 절망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함께 가고 필요하면, 너희에게서 십자가를 넘겨받는다. 이에 대한 확신이 너희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면, 너희를 강하게 해야 한다.

왜냐면 고난과 고통은 이 땅에서 너희의 혼이 성숙함에 도달하게 돕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땅에 육신을 벗어나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너희는 언제인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에게 향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정해 그의 혼에게 최선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운명에 복종하여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라. 너희의 작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나 항상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간 분을 생각하라. 왜냐면 그는 너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두 나에게 오라.”

B.D. No. 4051

1947년 5월 29일

너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 분의 사랑이 너희가 그를 인정하고, 너희의 십자가로 그분에게 넘겨주기를 원하면, 너희가 이 땅의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돕기 원한다. 왜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의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도피해 도움을 구하고, 그의 도움을 굳게 믿는 사람을 그분이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 심장을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는 그분의 말씀이다. 너희는 몸과 혼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심장으로 불러야 한다. “나는 너희를 쾌활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너희에게서 모든 무거운 것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가 짊어 지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더 이상 짐을 느끼지 않게 한다.

왜냐면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를 굳게 믿는 믿음이 단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도움을 받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 아래에 두고 세상의 구원자로 부르는 그에게 피난처를 취하는 사람은 곧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가 고통받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자신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속죄제사를 드릴 준비가 된 일은, 가장 순수한 빛의 존재인 예수가 사탄에게 속한 압 잡이들과 사형 집행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어, 그의 순결함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두운 혼들에게 내적으로 반항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게 몇배의 고통을 가하게 한 일은 인간 예수의 공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셨고, 이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인류는 이제 모든 짐을 그에게 넘겨줄 수 있고, 언제든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분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신을 그분과 같이 사랑으로 형성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그를 너무 많이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행하는 일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일 가운데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B.D. No. 8139

1962년 3월 30일

나는 너희 모두의 아버지이다. 일어나는 또는 허용된 모든 일은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주 큰 사랑의 증거이고 이는 너희의 완성을 돕는다. 그러나 너희에게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나에게 십자가 지는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안의 나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가 한때 너희가 지은 큰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서 완성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너희에게서 십자가의 짐을 넘겨 받아 너희를 위해 질 것이다. 또는 너희 스스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십자가는 너희에게 너무 무겁게 짓누르지 않을 것이다. 짐은 가볍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예수를 따르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미 너희에게 너희가 그를 따르면, 십자가를 져야만 함을 알려 주었다. 그러나 예수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이고 아버지로 남는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인간이 된 것을 통해 나는 너희들과 아주 연합이 되어 나는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 십자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희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이를 너희를 위해 질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에게 항상 계속하여 새로운 능력이 제공 된다. 나로부터 온 이 능력은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구매한 은혜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안의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가 나와 내 구속사역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내 고난과 죽음에 처해보게 하면, 너희가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았고 너희를 위해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짐을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 너희는 항상 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은혜의 흐름이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이 은혜는 강화 된 의지로 능력으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내 의지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육체가 연약하고 불쌍한 지라도 그러나 혼에게 이런 능력이 임한다. 이런 보장이 너희에게 육체적인 고난이나 질병을 견디게 해야 한다. 왜냐면 육체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의 문을 열었다.

B.D. No. 6850

1957년 6월 12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너희 모두에게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과 여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영광의 생명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왜냐면 그의 이 땅의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 하고 너희가 그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려면, 십자가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그의 이 땅의 삶의 목표였다. 왜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인간들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구세주를 발견하게 된다. 이말은 너희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너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아래 그에게 옮기는 일을 의미하고 이로써 그의 신적인 사명을 믿는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이로써 너희가 너희를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려는 너희의 의지를 선언하는 일을 의미한다. 왜냐면 그러면 너희가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나 자신을 깨닫기 때문이다. 너희가 영생의 문에 도달하려면, 너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만 한다. 왜냐면 다른 어떤 길도 이 문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너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질문하지 않는다. 너희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그의 사랑의 가르침이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항상 또 다시 들을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귀를 막고 모든 말이 공허한 소리처럼 너희를 스쳐 지나가게 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의 역사에 관해 듣는 내용은 너희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너희 심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내용이 너희 안에서 아직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귀로 들은 것을 아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는 언젠가 축복의 문 앞에서 기다려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입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고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고 그의 피가 너희를 깨끗이 씻을 수 없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가득한 가운데 영원의 문 앞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너희 자신이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고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너희의 죄를 의식하고 그에게 너희 자신을 드리고 그가 너희를 돌보고 또한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기를 진심으로 간구해야만 하고 너희는 그의 용서를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의 죄짐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고 이제 빛으로 가는 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이제 영원한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너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너희가 여전히 그의 이름이 모든 것임을 믿기 원하고 깊은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너희를 여전히 짓누르는 죄의 결과인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는 것을 믿기 원하면, 내가 이런 큰 죄짐을 너희에게서 넘겨받기 위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사는 너희가 탄식하는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이 땅의 길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자신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일.

B.D. No. 7925

1961년 6월 23일

인간 예수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을 때 너희에게 다시 빛과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과 나 사이에 막혔던 길이 연결이 되었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

나 자신을 그 안에 전적으로 모셨던, 그러므로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완성한 이런 공훈의 역사는 일회적인 역사이고 절대로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역사이다. 왜냐면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드러졌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의 죽음은 아주 고통스러워 그의 육체적인 혼적인 고통은 측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들이 한 때 나를 떠나 타락한 큰 죄를 위한 속죄로 만족했다.

이로써 내 공의도 만족이 되었고 최고로 온전한 존재도 지켜야만 하는 지키지 않으면, 그의 온전함에 해가 되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내 사랑이 너희를 다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인간 예수의 희생제사를 영접했다. 내 피조물인 너희가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너희의 아버지 집의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 열렸다.

너희 사람들이 너희가 한 때 지은 큰 죄를 생각하면, 너희가 인간 예수의 측량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너희가 내 나라의 영광을 상상해 보려고 시도하면, 너희는 비로소 인간 예수의 구속사역이 너희 사람들에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를 고백해야만 함을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두움 속에 머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빛과 축복의 나라가 닫혀 있고 너희가 그를 인정할 때까지 너희가 의식적으로 그의 편에 설 때까지 닫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먼저 죄를 지었다는 것에 관해 설명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의 큰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구속사역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같은 어두움 가운데 너희와 나 사이에 큰 간격을 만든 원죄의 짐을 진 가운데 저세상으로 가면, 너희의 이 땅의 과정이 쓸모없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가 너희 모두를 위해 너희와 나 사이에 다리를 만들었고 너희 모두는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너희가 너희를 위한 큰 공훈의 역사를 활용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인간 예수 안에서 거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한 나 자신이 그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해 빛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너희를 위해 다시 열어줘 너희가 이제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예수를 그리고 예수 안의 나를 인정하면, 너희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가 한때 지은 죄짐이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각각의 사람이 그에 대한 그의 구속사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만 한다. 다리는 놓였다. 그러나 모든 각각의 사람이 스스로 이 다리를 건너, 심연의 건너편에서 기다리며 너희를 기쁨으로 영접하기 원하는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

너희의 죄짐은 사함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이 죄짐을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가야만 한다. 너희가 스스로 인간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린, 이런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길 원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한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의식적으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세주는 너희의 죄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면 그의 피는 너희를 위해 흘린 것이며 너희의 혼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항상 또 다시 인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가장 밝은 깨달음과 최고의 온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때 의식적으로 나를 떠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너희의 큰 죄를 항상 또 다시 기억해야 한다. 너희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졌다. 인간 예수가 나에게 드린 속죄는 진실로 측량할 수 없이 크고 어려운 속죄였다.

그의 이웃을 향한 큰 사랑 때문에 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영접하고 속죄로써 만족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그의 사랑의 큰 역사를 활용하여 너희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고 너희가 죽은 후에 저세상에 가게 될 때 닫혀진 문 앞에 서게 되지 않아야 한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문이 다시 열렸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 사람들에게 구속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피로 너희의 혼을 내 대적자로부터 구매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로 모든 위험 가운데 있는 너희의 구세주가 됐다. 왜냐면 그가 너희에게 생명을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그 자신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에게 충만한 사랑이 이런 역사를 완성했다. 이 사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영원한 너희 아버지가 스스로 인간 예수 안에 거했다.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너희의 죄를 위해 죽었고 너희를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 다리를 놓았다. 너희 모두가 축복되기 원하면, 이 다리를 건너야만 한다.

아멘

깊은 곳에서 얻는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지식.

B.D. No. 7288

1959년 2월 20일

나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모든 혼들을 위해 내 피를 흘렸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들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는 이런 혼들에게 희망의 빛이고 그들이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면, 그들이 그들에게 견딜 수 없게 되어가는 고난을 벗어나기 원하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줄기이다.

왜냐면 빛의 일꾼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구세주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면, 가장 깊은 곳에도 한동안 빛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빛의 일꾼이 가장하고 나타난다. 빛은 일꾼은 어두움의 혼들에게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탈출구를 모색하고 그들이 이 땅의 세계에서 들었지만 절대로 믿지 않았던 한 분을 기억하는 부류의 혼들로 보인다. 그러면 열심히 논쟁하게 되고 대부분 인간 예수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나를 대적한다.

왜냐면 그들 모두는 아직 모든 혼들을 잃는 일을 허용하기를 원치 않는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의 일꾼은 그가 해를 끼칠 수 없는 대상이고 탈출구를 구하는 그들을 인도한다는 제안을 하는 빛의 일꾼을 신뢰하는 각각의 혼들에게 빛의 일꾼의 주장은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밝은 빛이 비추는 곳으로 그들의 깨달음이 증가되는 곳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희망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빛의 영역에서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이고 그러나 그들 스스로 그들의 자세를 통해 비로소 빛의 영역에 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만 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적으로 거부하는 동안에는 그들이 아직 어두움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어두움이 항상 또 다시 그들을 공격할 것이고 새롭게 큰 고통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참여하고 동의했으면, 그들은 빛의 존재가 한 말을 잊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또 다시 그들의 생각을 통해 이 말을 다시 되새기게 되고 빛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는 소원이 커지게 되고 자신을 구원하고 그러므로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들으려고 한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만약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에 어두움으로부터 구원받으려는 그들의 소원이 깨어나면, 대부분 단지 작은 정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소원이 없으면, 그들에게 내 십자가의 희생제사에 대한 어떤 깨달음도 없다.

그러면 사랑의 빛의 일꾼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아직 전적으로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강박한 혼들이 다르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종말 전의 마지막 때에 쉬지 않고 바로 이런 어둠 가운데 있는 혼들을 위한 일을 빛의 존재가 해야 한다.

빛의 존재들은 종말 전에 그들이 깊고도 깊은 곳을 떠날 수 있게 이로서 그들이 그들의 현재의 처한 고통보다 고통이 훨씬 더 큰 새로운 파문을 받지 않게 그들을 돕기 원한다. 이런 혼들을 위한 너희의 기도가 그들의 강박함을 줄이고 도울 자세가 되어 있는 존재가 그들이 자유롭게 되게 돕기 위해 그들에게 제안하면, 자신을 여는 데 많이 기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곳으로 자신의 빛을 비춘다. 이 빛은 혼이 항상 관련 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존재의 자유의지가 비로소 혼에게 구속사역에 대한 은혜를 부어 줄 수 있게 만든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에게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을 위해 부르짖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혼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 혼은 비로소 이렇게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혼 안에 내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깨어나게 하고 강하게 하여 혼이 오랫동안 당했던 고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주기를 혼이 이제 긴밀하게 구하게 한다. 혼 안에서 구하는 결정이 성숙하게 되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러면 혼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올라선다. 다시 말해 혼이 더 이상 어두운 영역에 들어설 필요 없다. 혼은 빛을 구하는 무리의 영접을 받고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스스로 깊은 감사함으로 그들과 어둠을 함께 나눠야만 했던 형제들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 손을 펼칠 것이다.

이런 혼은 많은 구속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왜냐면 혼이 그의 사랑의 재촉을 따라 이제 열심히 그들과 어둠을 함께 나눠야만 했던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혼들을 영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린 분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확신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아멘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B.D. No. 7404

1959년 9월 5일

이제 빛의 나라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을 인도해 목표에 도달하게 한 나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 왜냐면 죄와 죽음은 어둠을 의미하고 구속을 받지 못한 혼은 절대로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은 이 전에 빛의 나라의 문을 유일하게 열 수 있는 분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의 손에 있는 혼들도 마찬가지로 빛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면 그가 혼들을 그들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로서 죄와 죽음 가운데 거하는 모든 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 사람들을 위해 죄짐의 대가를 지불했고 너희가 빛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자유롭게 되고 너희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1959년 9월 5일) 단지 빛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은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다. 그러나 그가 죄가 해결되길 구하고 예수에게 용서해주기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죄를 해결한다. 그러므로 저세상에서도 혼들의 구속이 있고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향하는 변화가 있다. 왜냐면 저세상에서 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혼이 예수그리스도를 부르면, 그는 나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혼의 죄짐을 용서할 수 있다. 혼의 죄짐이 혼을 나와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떨어져 있게 했다.

십자가의 제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드러졌다. 구속받지 못한 한 혼이라도 있으면, 죄짐을 벗기 위해 단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일은 나와 교제한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제한이 없는 축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진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혼이 아직 진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혼은 아직 최고의 축복을 기뻐할 수 없다. 왜냐면 진리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빛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빛은 깨달음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다. 혼이 저세상에서 아직 이런 깨달음이 없는 동안에는 혼은 아직 빛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면 그가 빛의 비추임을 받으면, 그 안에 갑작스럽게 깊은 깨달음을 받기 때문이다.

혼이 진리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면, 그의 축복된 정도는 부족할 것이다. 혼은 그러면 예수그리스도를 아직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긴밀하게 부르면, 받게 될 전적인 구속을 아직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셀 수 없이 많은 혼들이 축복되지 못하다고 할 수 없지만 축복된 상태는 아닌 아직 여명의 상태에서 거한다.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가 그들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열릴 정도가 아직 아니다. 이런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아직 많은 가르침과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

혼들이 잘못 된 생각과 여러 종류의 잘못 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혼들은 전적인 빛의 비추임을 받는 일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혼의 의지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정한다. 이 땅에서 계속하여 거부한 사람은 저세상에서도 자신의 거부하려는 의지를 항상 또 다시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모든 긴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청함이 영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그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어두움을 사라질 것이고 빛이 이제 아주 밝게 비추어 혼을 뜨겁게 해주고 모든 영적인 어두움이 사라질 것이고 혼은 깨달음에 도달할 것이고 가장 깊은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을 이제 영원히 더 이상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아멘

저세상에 있는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

B.D. No. 7839

1961년 3월 2일

저 세상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영원 동안 구원을 받는다.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거하거나 또는 여명 가운데 거하는 혼이 내 이름에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을 한

빛의 일꾼을 통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통해 그들에게 나와 내 구속사역을 전하면, 어두움은 그로부터 사라진다.

이미 내 이름의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들은 나를 구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혼들의 의지는 자유하고 자유롭게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영접하기까지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역사하기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함께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존재가 성공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이 혼을 얻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구속사역을 거론하는 곳에서 혼들이 항상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혼들이 자유의지로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고 나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게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혼이 함께하게 부르는 일은 큰 축복이다.

왜냐면 그들이 축복되지 못한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행이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편을 나아지게 자기 자신에 대해 그들의 이 땅의 삶에 대해 그들의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람들 편에서 드리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받으면, 그들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도우려는 의지를 느끼면, 저항은 이미 줄어든다. 그러면 저세상에서 항상 또 다시 혼들에게 제공이 되는 도움에 대한 저항도 줄어든다. 저항을 포기하는 일은 이미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혼들이 받는 모든 감동은 결과를 나타내 혼을 행복하게 하고 빛에 대한 갈망을 크게하는 작은 빛을 혼에게 선물하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나를 찾지 못한 저세상에 있는 혼들은 나를 찾아야만 한다. 만약에 너희 사람들이 위험 가운데 있는 혼들을 자주 생각하면, 너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혼들에게 항상 단지 유일하게 그들을 축복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알려주면, 너희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혼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하는 생각은 빛의 불씨와 같고 그들 안에 기쁨을 주는 그들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빛의 근원을 향해 추구하게 한다. 세상에서는 모든 영적인 가르침을 멀리 하면서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후에 어떠한 영적인 재물도 없이 저 세상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재물을 자유의지로 얻어야만 한다.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은 어떠한 저항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복음을 사랑으로 그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한다. 너희 사람들이 이런 혼들을 영접하면, 혼들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

너희의 생각이 그들을 항상 너희에게 이끌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거절했던 것을 너희들로부터 영접할 것이고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사랑이 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랑은 효과가 없이 머물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어두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예수 안의 나를 찾지 못한 혼들을 자주 생각하라.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라. 너희는 특별히 종말의 때에 큰 의미가 있는 축복된 구속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아직 많은 혼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구속을 받아 종말이 오면, 그들이 새로운 파문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역사의 은혜.

B.D. No. 2101

1941년 10월 7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이룩한 구속 사역은 은혜이다. 이 은혜가 사람들이 그들의 약한 의지를 극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혼의 원수에게 대적할 수 없는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고, 그들이 힘과 은혜를 갈망한다면, 그들에게 힘과 은혜가 측량할 수 없게 흘러가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소한 의지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느끼게 하고, 이런 역사가 영적인 추구가 증가되는 일로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전의 인류의 상태는 불쌍했고, 혼에게 높은 곳으로 향하려는 어떤 의지도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죽음 후의 계속 산다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이 추구하는 일은 단지 이 땅의 이익과 육체적인 행복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의 이 땅의 삶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요청은 단지 이 땅의 삶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혼과 혼의 형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영적인 노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자세를 가진 인류가 되었다.

이런 역사는 아직 인간의 의지를 아주 많이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있고, 그들을 서로에게 대항하게 하면서 사랑을 잃게 만든 대적자의 역사였다. 세상의 복지를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모든 수단이 옳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일은 악하고, 사랑이 없었다. 그런 때에 인간 예수가 살았다. 예수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컸고,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단지 가장 긴밀한 사랑으로만 가능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고, 그의 사랑은 고갈될 수 없었다. 예수는 영원한 사랑을 자신 안에 모셨다. 예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았다. 그는 단지 사랑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설교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대적자의 권세를 벗어나게 했다. 그러나 대적자의 의지는 더 강했고, 그러므로 대적자가 항상 또 다시 인간의 의지를 짓눌렀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로 만들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켰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드렸고, 대적자로부터 자신의 의지에 대한 권세를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적자의 의지를 꺾고, 자신이 인류를 위해 죽은 인류를 자유롭게 했다. 왜냐하면 인간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희생을 받아들였고, 구속 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준다. 왜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또한 자신을 묶기 원하는 자로부터 도피하려는 갈망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대적자의 의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에 속해 있다.

대적자는 아직 그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 자신의 의지는 대적자의 권세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대적자의 의지에 순복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롭게 될 수 없다. 예수는 혼자서는 너무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치렀다. 예수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대적자의 의지에 저항했고, 대적자는 이 의지를 견뎌낼 수 없었다. 왜냐면 예수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힘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인간의 의지가 강해지는 일이, 사람이 높은 곳으로 향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는 일이 구속 사역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이 예수를 모범으로 삼는 일이, 이로써 그가 이 땅에서 그의 삶을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사랑과 공의 안에서 사는 일이 은혜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에 대해 진지한 사람은, 예수를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혼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인내하며 짊어지고, 항상 단지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의지가 강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혼의 원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얻은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위로 향하는 길이 그에게 쉽게 될 것이다. 그는 이 길을 절대로 인도가 없이 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세주의 형상이 항상 그에게 빛을 비추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고, 그로 인해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면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일도 어렵게 되지 않을 것을 안다. 왜냐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가 예수께 긍휼을 구할 때, 그는 자신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안다. 그는 대적자의 권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원한다면, 그가 대적자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면 그의 의지를 통해 그에게 힘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그를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다. 그러나 그 전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약해서,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다. 인간 예수는 이런 의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겼다. 그는 자신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대항하여, 그를 패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대적자를 패배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가 의식적으로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아멘

구속역사의 은혜를 요청하는 일을 해야할 때이다. 왜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었다. 그는 사람들의 고난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를 짊어졌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짐을 덜어주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도움의 요청을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은 이런 부름 후에 강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 자신이 자신의 구속사역의 은혜로서 그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그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모든 두려움은 그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그는 더 큰 힘으로 높은 곳을 추구할 것이고, 이 땅의 고통이 그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고난을 견디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느냐! 그와 그의 구속사역을 믿는 믿음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적느냐! 얼마나 희귀하게 구속사역의 은혜를 요청하고 의식적으로 받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난이 지나칠 보일 정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고난을 견뎌야만 하고, 이 고난을 스스로 짊어져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험이 아주 크고, 인류의 의지는 연약하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들의 길을 가기 때문이고 따라서 엄청난 짐을 지고 큰 정화를 위한 고난을 겪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직 이 땅에서 그들 자신이 골고다를 향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들의 혼의 곁형체가 녹여야 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들 안의 사랑의 불씨가 불타오르게 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기회를 주기를 원하고 이로써 그들이 이제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구세주로 깨닫게 한다. 고난이 그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게 하는 목표에 도달하도록 단지 도움을 준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은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 그들에게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 고난에 감사하고 고난을 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짊어 지도록 도와달라고 구할 때, 단지 이 땅의 고난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연약한 의지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고난의 때를 통과할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힘을 얻고, 구속사역의 은혜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에게 더 이상 힘이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 힘으로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고난에 의해 짓눌리지 않는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죄에 대한 형벌도 자신의 어깨로 짊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구한다면, 그는 그의 이 땅의 삶을 통해 정화가 될 수 있다. 그는 정화나 고통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강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단지 고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속사역의 은혜가 제한이 없게 인간에게 제공된다. 그는 이 은혜를 항상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그들의 이 땅의 운명이 진실로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구원받으려면 활용해야 하는 종말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멸망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위험 가운데 십자가로 도피하기 때문이다. 그는 헛되이 구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의 고난은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의 의지는 강하게 될 것이고, 모든 영적인 육체적 비참함을 극복하는 그의 힘이 증가 될 것이고, 그는 삶의 싸움을 견디어 낼 것이고, 그의 이 땅의 과정은 성공할 것이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에게 다음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구속역사의 은혜를 활용하라.

B.D. No. 6383

1955년 10월 22일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내 구원 역사의 은혜를 활용한다. 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모든 사람은 내 긍휼의 역사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가지 조건은 사람 자신이 저항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저항은 그가 나와 내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그가 내 피를 통해 구속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일이고 이로써 그가 의식적으로 죄와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자의 추종자가 되는 일이다.

자신을 내 십자가 아래 두고 자신의 죄의 짐을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에게 빛의 나라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빛의 나라가 닫혀 있었다. 내가 그를 위해 속죄를 행했고 이로써 그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희생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를 피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그러면 비록 희생이 또한 그를 위해 드러졌고 그가 또한 자신을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과 긍휼의 역사는 그에게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의지에 반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자원하여 내 대적자 편에 섰기 때문이다.

내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였다. 그러나 단지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역사를 활용한다. 사람들이 인류가 축복에 도달하도록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너희 사람들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사람들 너희 모두를 위한 인간 예수의 아주 큰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 땅의 영적인 비참함이 그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들을 나로부터 분리시킨 큰 죄짐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인간 예수는 사랑으로 아주 충만해서 나 자신이 그 안에 거할 수 있었고 그의 곁형체가 나를 모든 충만함으로 거할 수 있게 했고 사랑으로 인해 너희를 위해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힘을 키웠다. 너희는 항상 이런 무한한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인간 예수가 너희를 위해 얻은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해야 한다. 이 은혜는 너희에게 풍성하게 제공이 되고 너희는 단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를 부르기 만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의 부름은 헛되지 않

을 것이다. 왜냐면 긍휼의 역사가 단지 너희를 위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연약함과 모든 영적인 고통과 세상적인 고통 가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의 간수장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간수장은 너희를 이미 영원한 기간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고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 자신에게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지 않으면, 너희가 그의 묶임 아래 아직 항상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너희는 왜 구속사역의 은혜를 사용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고 예수에게 구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너희의 죄의 짐을 그의 십자가 아래로 옮기지 않느냐?

너희 혼자서는 그의 권세로부터 절대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너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너희는 이 일에 쉽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예수가 너희의 혼의 원수에 대항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가 없이는 너희는 너무 연약하고 너희는 영원히 그의 권세에 묶여 있게 된다.

너희는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너희는 주제 넘게 그를 단지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성육신의 신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고 요청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 이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와 내 역사를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어 내가 내 죽음을 통해 너희를 위해 열어 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준다.

B.D. No. 6958

1957년 10월 31일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빛을 밝혀 주고 길을 밝혀 줄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일은 너희가 자유의지로 스스로 해야만 한다. 나는 너희에게 내 동행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내 동행을 받게 재촉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강요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나에게 속해야만 하고 내가 너희의 길에 동행자로서 항상 너희와 함께 가주기를 나에게 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잘못 된 길을 갈 수 없다. 내 편에서 진실로 너희가 높은 곳의 나에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에게 너희 자신이 올바르게 생각한대로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

왜냐면 그들이 그들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내 편에서 주는 모든 지식이나 경고의 말에 자신을 닫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하는 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실제 사람들에게 순종하게 강요할 수 있다. 너희는 올바르지 않게 너희에게 저항을 한다고 믿는 곳에서 너희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영원한 구원계획은 영적인 존재들을 다시 얻는 일에 관한 일이라면, 모든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마지막 목표로 도달하기 원하는 것을 단지 존재의 자유의지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이 목표를 쉬지 않고 추구할 것이다. 내 사랑은 영적인 존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어 존재가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수단을 찾을 것이다. 사랑은 많은 것에 도달한다.

사랑하는 존재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에게 미치는 모든 영향은 성공할 수 있다. 반면에 존재가 아직 내 대적자에게 향해 있으면, 이에 대항해 관철시키는 일이 어렵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존중을 받고 단지 이 의지를 얻으려고 쉬지 않고 노력한다. 또는 항상 또 다시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 즉 빛을 밝혀 준다.

사람들이 항상 또 다시 위로부터 온 빛으로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 땅의 과제를 눈 앞에 보게 하는 내 말을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구세주의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하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의 관점이 한번 이런 밝은 길로 향하면, 그가 이 길을 갈지 십자가를 추구할지를 의지가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 길을 스스로 가야만 한다. 길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 길로 들어서지 않는 일은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단지 내 말을 알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아는 일로는 소용이 없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예수가 이 땅에서

실천한 것처럼 내 말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 사람들에게 밝은 빛 가운데 보여준 길을 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어떤 길을 가는 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곁길을 통해 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올바른 인도가 없이 갈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이 길은 피할 수 없이 깊은 곳으로 내 사랑이 이미 그를 끌어올렸던, 그가 걸어왔던 길로 다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나에게 의탁해야만 한다. 그는 나에게 인도를 구해야만 한다. 그는 언젠가 그가 밝은 빛 가운데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길을 관찰해야만 한다. 그가 이 길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함을 그에게 보여주는 십자가를 보면, 놀라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그는 항상 단지 이 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목표를 생각해야 한다. 그가 이 길에 들어서기 원하면, 그는 나에게 능력을 구해야만 하고 자신을 내 인도에 맡겨야만 한다.

그는 진실로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를 항상 모든 위험한 절벽을 지나게 인도하고 그가 모든 장애물을 쉽게 극복하게 인도하고 애를 쓰지 않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인도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항상 능력을 제공해 길이 그에게 가파르게 보일지라도 피곤해질 필요가 없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혼자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그가 혼자라면, 그를 아주 빠르고 쉽게 다시 올바른 길을 벗어 나서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다른 자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이 항상 그를 뒤따를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어떠한 내 피조물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과 고난은 성장을 위한 도구.

B.D. No. 6701

1956년 11월 29일

내 복음은 너희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항상 또 다시 사랑을 가르친다. 왜냐면 사랑이 단지 너희 혼의 모든 부족한 점을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랑은 혼을 정화시키는 불이고 모든 고귀하지 못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 사랑에 자주 동행자로서 고난이 함께 한다. 고난은 이 전에 사랑을 거절하게 하는 두꺼운 걸형체를 분해시킨다. 그러므로 사랑과 고난은 혼을 순수하게 하는 도구이며 덕스럽지 못한 것을 덕스럽게 바꾼다. 사랑과 고난은 교만을 이기고 사람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겸손을 불러일으키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온유하고 인내하도록 양육하고 긍휼을 베풀도록 자극하고 공의가 드러나게 한다.

사랑과 고난은 사람의 모든 성품을 변화시켜 이 땅에서 영화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사랑을 행하고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고 이웃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혼이 성장에 이르도록 돕는 일에 애써야 한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혼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그는 모든 죄악과 정욕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한 힘이 그가 다시 이웃에게 행하는

사랑 안에서 커질 것이다. 그에게 고난이 주어지면, 그는 이 고난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도구로 여기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아직 약한 곳을 고난이 돕기 때문이다. 혼은 빛이 충만한 상태로 영계로 가기 위해 수정처럼 투명하게 육신을 떠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크게 또는 작게 아직 혼에게 빛이 임하는 것을 막는 걸형체를 해결해야 한다. 너희는 덕성을 키우기 위해 즉 혼을 꾸미기 위해 너희 자신에 더욱 작업을 해야만 한다. 너희는 겸손과 온유와 평안과 긍휼과 공의와 인내에 도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의식적으로 너희 자신에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작업을 위해 자주 모든 종류의 고난이 도움을 준다. 너희는 구원하려는 의미를 갖은 고난의 축복을 깨달아야만 하고 고난을 항상 죄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이 아니고 자주 단지 혼이 성숙해지게 하는 효과 있는 도구로 봐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과 덕스럽지 못한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싸움이 필요하다. 이 싸움은 종종 모든 악을 줄이기보다 더욱 크게 하기 쉬운 육신의 안락함 가운데 싸우는 것보다 육신의 고난 가운데 싸우는 것이 더욱 쉽다. 내가 아무 생각이 없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의 십자기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는 실제 너희의 죄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모든 고난을 짊어 졌다. 나는 이를 통해 너희가 다시 힘을 얻고 자유롭게 될 수 있게 했다.

너희가 나와 내 구원 사역을 인정하고 나에게 구원해주기를 구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를 구하면, 즉 구원사역의 은혜를 취하기만 하면, 구원사역으로 인해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빛의 나라에 갈수 있는 문이 열린다. 그러나 너희 스스로 어느 정도 해야 하는 혼에 대한 작업은 너희에게 맡겨져 있다. 왜냐하면 혼에 대한 작업이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너희의 빛의 단계를 정하기 때문이다.

자원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무의식적으로 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나와 함께 골고다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의 혼에게 진실로 아주 큰일을 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혼은 나와 같이 빛의 나라로 향하는 길을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은 빛나는 상태로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존재에서 태초에 가졌던 신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일이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복종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견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길에 동행하는 고난을 축복하라. 너희 안의 사랑이 전적으로 발전되게 하라. 그러면 너희의 이 땅의 길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은 너희가 가장 아름다운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이 목표는 너희의 영원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아멘

모든 영을 향한 생각은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B.D. No. 7313

1959년 3월 21일

나를 향한 또는 영의 나라를 향한 모든 생각은 축복이다. 왜냐하면 이 생각은 세상의 삶이 혼을 위해 성공하려면, 세상의 삶과 함께 나란히 살아야 할 내면의 삶을 비로소 증거하

기 때문이다. 단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게 향하는 길을 한걸음 옮긴 것이다. 그는 이 길을 계속 갈 것이고 더 이상 이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관심을 드린 영의 나라가 그를 더 이상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향한 길을 먼저 한번 가면, 나 자신이 그를 더 이상 제외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하는 일을 요구한다. 왜냐면 사람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의 생각이 세상과 세상의 요구에 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라도 만약에 그가 나를 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삶은 사람을 남김 없이 만족시켜주는 실제적인 삶이 아니다. 단지 내 대적자에게 속에 있는 사람이 전적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을 향한 생각은 이미 나를 추구하는 것을 증명하고 단지 유일하게 세상만으로는 이런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는 자주 자신의 생각을 그가 자신의 진정한 고향으로 짐작하는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생각으로 그곳을 향하는 나라에 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생각은 항상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연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혼을 소유할 수 있고 그가 더 이상 나와 내 사랑을 벗어나지 않게 자신이 자유의지로 내 사랑의에 묶이게 그의 혼을 붙잡을 수 있다.

사람 자신이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면, 그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려 보려고 시도하고 그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가 되어 있고 그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올바르게 진실 된 답변을 받기 원하면, 그러므로 그가 단지 세상의 삶의 밖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그의 내면의 삶의 중심에 들어선다. 그러면 나는 진실로 이 사람에게 항상 성공적으로 역사할 수 있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그로 하여금 이런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의지가 나에게 그의 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혼이 성장하기 위한 혼이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게 한다. 자유의지로 나를 향한 모든 영적인 생각은 또는 내 나라를 향한 생각은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일이다.

나는 이제 그가 전적으로 자유롭게 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 생각을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할 것이다. 이런 영적인 생각은 거부할 수 없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수로부터 대적자로부터 사람들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구속을 완성한 골고다의 십자가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을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는 일은 항상 모든 빛의 존재의 염려와 노력이 될 것이다. 빛의 존재들은 사람들을 둘러싸고 내 사명을 받아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그가 내 대적자의 권세 아래 있는 동안에는 연약하기 때문이다. 모든 영을 향한 생각은 이런 빛의 존재들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혼들은 계속하여 영적으로 돌보는 자의 보호 아래 있다. 그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표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고난.

B.D. No. 5847

1954년 1월 7일

이 땅의 어떤 사람도 예수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측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사람이 아직 영화되지 못한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예수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면 육체의 고통보다 혼의 고통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고, 예수는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이 스스로 악의 권세들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고, 그의 빛의 혼은 이런 어두움 앞에서 몸서리쳤고, 그의 혼이 그의 몸보다 더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알고 있지만 너희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상상할 수 없다. 너희가 영의 나라에서 너희 혼이 빛 가운데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공허의 역사가 너희에게 보일 때 너희는 비로소 그의 구속 역사의 크기를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되고, 영적인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극도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인 인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면 된다. 너희는 그가 죄없이 고난을 당했고, 그 자신이 이 땅에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충분한 분이었고,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인해 힘과 권세가 충만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버렸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가 그분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의식적으로 그의 편에 서야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를 자신에게 부르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너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의 사명을 믿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단지 인류가 죽음에서 구속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허락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속죄받지 않고 머물 수 없고 인간 자신이 결코 속죄할 수 없는 죄에 대해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믿기를 원한다.

인간 예수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화목케 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너희는 단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필요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사랑이 너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인간 예수가 하나님과 자신의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했고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이 인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었고 이로써 모든 기적과 예수의 지혜를 단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이상이라는 것을 너희는 단지 믿어야 하고, 이제 직접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너희가

예수가 사람들을 위해 구속 역사를 완성한 사람들의 무리에 또한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너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혼을 구속할 것이다. 왜냐면 혼이 대적자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구세주 예수가 자신을 영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혼이 죄를 피하고 선을 행할 것이고, 자신에게 자유를 준 분에게 자신을 드릴 것이고, 온 세상 앞에서 그의 이름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줄어드는 고난.

B.D. No. 6168

1955년 1월 18일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고통을 어깨에 메고 대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구원자인 구세주를 더 많이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비참함과 고난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와 그의 구속 역사를 믿어야만 한다. 왜냐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자신의 죄짐을 속량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구세주의 십자가 아래로 가져간 죄짐이 단지 속량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통한 구속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짐은 여전히 인간에게 죄짐이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짐을 위해 속죄해야만 하고 자신이 한때 지은 죄의 결과인 모든 고난인 위험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을 스스로 견뎌야만 한다. 예수는 인류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죄의 결과인 고통을 짊어졌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통해 죄짐을 벗겨주기를 원했고 속죄를 행했다. 이로써 사람들이 비참함과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했고 이런 자유함으로 그들이 한때 자유의지로 떠났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할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죄짐에서 해방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구세주가 아주 큰 사랑으로 그들의 모든 죄짐을 넘겨받아 자신이 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인정받기 원하는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단지 그의 죄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자신의 죄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기억해주기를 구하고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 아래 두는 사람이 단지 용서를 받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그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인정받기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 머문다. 이런 죄짐들이 엄청나게 쌓여 사람들이 죄의 영향으로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한 무리에 속하지 않고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사랑이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구속역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제외시키는 사람은 구속사역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서 이미 끔찍한 운명을 당하지 않는다면, 저세상에서 확실하게 끔찍한 운명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자신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은 모든 사람은 속죄를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B.D. No. 6098

1954년 11월 4일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를 완성으로 인도하는 선생이요 조연자가 되기 원한다. 그러나 너희 의지가 나를 영접하고 지도자요 선생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르침은 효과가 없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한 걸음도 성장해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적으로 모든 심장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대하면, 너희는 동시에 올바른 길을 가르침 받은 것이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구하고 찾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즉시로 나를 거부하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고 모든 것을 채우는 영원한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냈고 이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고 그들에게 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면,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의 가장 큰 위험이다.

만약에 너희가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갈망하면, 너희는 항상 이런 의미에서 가르침 받을 것이다. 나에 관한 설명과 너희의 과제에 관한 설명과 영원한 신성에 관한 모든 다른 설명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른 설명들을 더 많이 믿고 그러므로 인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인류는 골고다를 향한 길을 가지 않는다. 인류는 인간 예수로써 내가 열어준 높은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 않고 사랑의 길을 가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랑이 육신을 입은 것으로 깨닫고 인정했을 것이다.

창조하는 한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 왜냐면 생각하는 사람은 창조하는 한 권세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창조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권세를 상상해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창조하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만 하고 이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뤄야만 한다는 것이 진리이고 정해진 일로 믿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사람이 나를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그에게 나를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

는 믿음을 요구한다.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해 생명으로 깨어날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임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깨달음의 빛과 확신의 능력을 그에게 주는 사랑이 자신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빛과 확신의 능력이 없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나는 무조건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나를 지도자로 제공하여 너희가 올바른 생각으로 인도받게 하고 진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비밀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올바른 가르침이 너희에게 빛을 주고 너희는 또한 이 가르침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단지 나 자신이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는다는 조건과 너희가 너희 안에서 인정하는 영원한 신성에게 설명해주시기를 구하고 올바른 생각하도록 해주기를 구하고 올바르게 인도해주시기를 구한다는 조건 아래 너희에게 줄 수 있다. 나는 진실로 이런 부탁을 들어줄 것이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을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너희가 이제 이런 믿음을 통해 축복을 받게 한다.

아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B.D. No. 6374

1955년 10월 10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는 진실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불러야 한다. 나를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 안에서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이로써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단지 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영이 그에게 그를 한때 생성되게 한 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육신을 입은 일을 믿지 않는 사람은 비록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그가 단지 양육을 통해 얻은 믿음이고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게 되지 못한 믿음이다. 왜냐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고 사랑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아버지와 하나가 된 세상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신성을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의 영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그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는 항상 내가 그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을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사람들은 항상 내 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영은 항상 너희 자신이 내 영에게 허용하고 사랑의 삶을 통해 내 영이 나 자신을 너희에게 표현할 기회를 줄 때,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마치 너희가 말씀을 직접 들은 것처럼 내 말씀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말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내 말씀과 함께 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자신이 축복을 받았고 말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의 혼이 빛을 받기 때문이다. 너희 혼은 깨달음에 도달하고 성숙해지고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너희는 내 뜻을 성취시킬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을 점점 더 사랑으로 형성할 것이고 너희의 혼은 아직 이 땅에서 온전함에 도달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라. 무엇보다도 너희가 이 땅에서 온전함에 도달하기를 위해 구하라. 너희의 이런 기도는 진실로 나에게 헛되게 드러진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영적인 요청을 들어주는 일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거부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한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가 이미 그의 자녀권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너희가 내 임재를 의식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머물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삶의 길을 영원한 아버지의 끊임없는 동반을 받으며 가고 절대로 잘못 된 길을 갈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너희는 항상 생각으로 영의 영역에 머물고 너희의 성장은 보장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말씀 대로 처신한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구한다면, 너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겠느냐? 너희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잘못 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기도를 항상 성취시켜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고 내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예수 안의 아버지를 부르라. 그러면 너희는 또한 구속받은 존재의 무리에 속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알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는 믿음이 전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너희는 이런 믿음을 증명한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의 제공.

B.D. No. 7197

1958년 10월 30일

너희는 이 땅의 옷을 입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싸움과 어둠과 연약함이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의 옷을 벗을 때 너희가 극복하였을 때 다시 말해 싸움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가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은 너희에게 마지막까지 싸움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에게 제공될 수 있는 능력을 단지 많이 또는 적게 구할 수 있다. 이제 너희가 단지 모든 긴밀함으로 너희에게 능력을 제공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인간으로써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분을 부르면, 너희가 스스로 강함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에게 능력을 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어둠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실패할 필요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록 너희가 큰 무기력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부르면, 너희 혼의 원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왜냐면 원수는 너희 안에 두려움을 심기 원하고 자신이 너희에 대한 권세를 갖기 위해 너희가 나를 떠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 대항해 싸워야만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을 이미 영으로 진리로 나를 부르는 일을 통해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다. 너희가 단지 긴밀하게 나를 생각하는 일만이 필요하다. 너희가 단지 나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너희의 내적인 위험을 나에게 아뢰고 너희가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나에게 강함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모든 연약함은 너희에게서 사라질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더 이상 내 가까이에서 너희의 연약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영으로 진리로 부르는 긴밀한 부름을 통해 너희는 내 임재를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생각만 할지라도 그러나 이 생각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곧 연약하다는 느낌이 내적인 평안과 안정감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 임재가 어떤 일이라도 짓누르는 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싸우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싸워야만 하는 동안에는 나는 너희가 함께 싸우는 전사로서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연약함은 해결될 것이다.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왜냐면 나 자신이 너희와 함께 싸우고 원수에 대항해 진실로 승리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 대적자가 어떤 사람에게도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이미 사람의 의지가 대적자의 권세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첫 번째이고 그의 관점이 십자가를 향했으면, 대적자는 뒤로 물러서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자유의지는 자유하다.

대적자는 의지에 역사할 수 없다. 나 자신도 사람의 의지가 올바른 길을 향하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는 자주 연약해져 있다. 의지가 아직 올바르게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의지는 예전의 권세 아래 머문다. 그러므로 너희의 첫 번째 기도가 너희의 의지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하게 이런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의지를 내 십자가에 죽음을 통해 얻었기 때문이다. 의지를 강하게 해주는 일은 성장을 위해 아주 중요하다. 너희는 이미 작은 구함을 통해 너희에게 강한 의지를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택할 것이고 너희는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그에게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와 원수와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주기를 구할 것이다. 내 사랑이 한때 나에 의해 생성되어 나온 너희 모두에게 향하는 일이 확실한 것처럼 너희의 구원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너희의 구원자요 구세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 일이 필요하고 너희가 그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에 대해 모든 인류를 위한 그의 십자가에 죽음의 이유를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 편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 된 인류 때문에 행해진 일을 알게 돌본다. 사람들의 관점이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아직 구속을 받지 못한 아직 죄악 가운데 머물고 용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택하게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모든 혼의 위험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단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을 가기만 하면 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세주와 그의 긍휼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 사람 안의 의지를 강하게 하여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게 하거나 또는 최소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항상 또 다시 연약함에 빠지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한다.

그러면 대적자는 무능력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평안과 구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전적으로 대적자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원하면, 그의 죄를 옮겨야만 하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할지는 유일하게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십자가를 향한 길을 가는데 방해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에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한 길을 원하고 그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면, 그는 방해 받을 수 없다. 이를 방해할 권한이 대적자에게 없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향한 의지가 최고이며 최선인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그에게 준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은 항상 단지 너희의 의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게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주기를 구해야 한다. 이런 기도는 진실로 응답받을 것이다.

왜냐면 이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고 나에게 구속을 받기 원하는 너희의 자세를 증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가 단지 보호가 필요하고 너희의 대적자에 대항할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의지는 응답받을 것이다. 너희의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강하게 되는 체험을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강한 의지를 구매해주기 위해 너희의 원수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

아멘

원수에 대항하는 더 강력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일.

B.D. No. 6827

1957년 5월 11일

대적자가 아직 너희를 강하게 공격하면, 그에게 저항하라. 다시 말해 나에게 도피하라. 대적자는 너희를 피해야만 한다. 너희가 이 길을 가면, 너희가 너희 생각을 즉시 나에게 향하고 내 보호를 구하면, 너희가 단지 그에게 저항하기 원하면, 너희는 쉽게 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적자는 너희가 즉시로 너희 자신을 나에게 속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해서 너희에게 저항할 힘이 없게 만드는 일에 성공한다. 너희 모두가 내 도움을 받아 저항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없이는 너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 내 대적자가 너희에 대한 권세를 갖게 되는 일에 대해 항상 너희에게 주의를 주기 원한다.

너희는 항상 너희를 돕기 원하는 너희의 부름을 기다리는 빛의 존재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빛의 존재는 단지 내 사명을 기다리고 만약에 너희가 단지 나를 생각하면, 번개같이 빠르게 방어할 자세가 되어 있다. 너희는 나와 항상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나를 부르는 일이 너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대적자가 나에게 속한 사람들 가운데 풍성한 소득을 얻기 위해 항상 또 다시 던지는 그물에 걸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단지 지속적인 싸움을 통해 승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면 싸움이 없는 상태는 너희 혼에게 성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싸움은 더욱 격렬하게 될 것이고 유혹은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내 대적자의 역사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내 은혜의 흐름도 항상 충만하게 흐르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이 제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단지 심장으로 나에게 속하고 계속해 나에게 머물기 원하면, 너희는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의 모든 유혹하는 기술이 쓸모가 없고 그는 너희를 떠난다. 왜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의 눈을 부시게 하고 너희는 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항상 기

도하고 사랑을 행함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임재 할 수 있게 하면, 너희 스스로 그가 가까이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내 가까이에서 다가오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의 권세와 그의 역사로부터 벗어난다. 그러나 다가오는 때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위해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그의 역사는 너희에게 불안과 평안 없음과 사람들 간의 원수를 맺는 일과 미움으로 포장된 사랑 없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는 모든 곳에서 항상 또 다시 자기의 말을 듣는 사람들 사용해 사람들 간에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혼돈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런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되고 너희는 가장 큰 인내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항상 단지 너희 눈을 나에게 돌려야 한다. 왜냐면 단지 나를 향한 부르침만으로 그가 너희로부터 물러나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유혹 가운데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가면, 너희는 다시 한 걸음 성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패배당할 것이다. 너희는 모두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하고 너희는 그보다 더 강한 분을 불러야 한다.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 그의 세력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를 꺾은 분을 알려 줘야 한다.

항상 모든 육체와 혼의 공격 속에서 단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진실로 너희 혼의 원수는 너희에 대한 모든 권세를 잃는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어떤 부르침도 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자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는 너희에게 능력을 주고 그의 도움으로 너희는 대적자에게 항상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너희는 내가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권세를 무너뜨린 자에 대항하여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구속역사.

B.D. No. 3787

1946년 6월 1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의 구세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 질 위험은 아주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 왜냐면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 영원을 위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었고, 인류를 위해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해 인간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문을 스스로 닫고, 나의 구속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구속역사를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문은 영원히 그들에게 닫혀 있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또한 그를 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와 나의 구속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대적자의 권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나를 떠나고,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로부터 모든 깨달음을 빼앗아 간 자를 추구한다. 종말이 가까이 다가왔고, 종말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다가왔다. 내가 다시 구세주로서 인류에게 다가가, 인류에게 영적인 자유와 빛과 지식을 주기 원한다. 내가 나의 구속역사의 은혜를 혼에게 부여할 수 있기 위해, 나는 단지 인정을 받기 원한다. 이로써 혼이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의지로 자신을 구원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힘과 은혜를 통해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나를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만 한다. 그들은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으로 계셨고, 인간 예수의 이웃 사람을 향한 큰 사랑이, 그를 믿지 않고,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가 얻은 은혜를 활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게 주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이웃 사람들이 피하게 해주기 위해, 고통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했음을 믿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며 사람인 예수의 사랑에 대해 공개적으로 증거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들이 증거하는 일이 전적으로 모두 나를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 앞에 그들이 진정으로 나의 자녀임을 보여준다. 나의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양육을 받고, 자녀는 또한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킨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하고,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힘든 때가 될 것이고, 이 때에 그들은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내가 약속한대로 그에게 힘이 측량할 수 없게 주어진다. 왜냐면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나의 사람들은 나를 추구하고, 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영으로 진리로 나를 부르고, 사랑 안에서 살고,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싸움이 사람들에게 임해야만 한다. 이로써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입장

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람은 나를 위할지, 나를 거부할지 결정을 해야만 한다. 왜냐면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을 위해 나 자신을 드렸다. 왜냐면 내가 모든 충만함으로 인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 없다. 왜냐면 그와 나는 하나이고, 그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를 고백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일.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

B.D. No. 4012

1947년 3월 31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을 위해 나서야만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만 하고, 구속의 역사를 믿어야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는 비로소 기독교의 한 교회에 속한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구성된 생명력이 있는 기독교에 속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추종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할 것이고, 위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맞서야만 하고, 그들이 이 가운데 자신의 몸의 생명을 잃을 까봐 두려워해야만 하게 될지라도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 혼을 영원을 위해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양보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항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돌보지만, 그는 자신의 혼을 파는 것이고, 세상이 그에게 제공하는 것은 영원을 위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파괴시킬 가까운 종말을 앞두고 인간에게 선택이 쉽게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위협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비난에 대해 용기 있고 용감할 것이다. 그러면 또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누구든지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도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한다." 사람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사랑의 호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의 사람들의 심장 안에 거할 것이고, 사람들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안에 거할 것이고, 가장 풍부한 지식을 줄 것이고, 종말의 때까지 말씀 안에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을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의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너희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나를 부인할 것인지 고백하라는 강요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견뎌야만 한다. 너희는 내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나를 위할 것인지 또는 나를 부인할 것인지 고백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하게 역사할 수 있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너희에게 요구된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연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와 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는다면,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더 나아가 나를 위해 결정한 작은 무리들은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분리가 되어야 한다. 분리되는 일은 단지 세상 앞에서 공개적인 고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 땅의 마지막 싸움에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신실하게 남기 원하는 사람들이 연합하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면 작은 무리인 너희는 서로 간에 위로와 능력을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의 사랑이 어려운 때를 위해 열어준 은혜의 원천에서 자신들을 쾌활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종말을, 나의 재림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려야만 한다.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대적자의 편이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십자가의 증거로 승리할 것이다.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의 나라에서 그의 집을 마련해줄 것이고, 내가 심판의 날에 그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그가 세상 앞에서 나를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다.

아멘

예수의 구속 사역은 일회적인 역사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은 내 사랑의 가장 큰 역사였다. 내 사랑은 무한하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내 피조물들이 아직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영원히 내 피조물들에게 향한다. 내 사랑은 또한 깊이 타락한 존재를 뒤따르고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항상 또 다시 돕는다. 내 사랑은 귀환의 역사가 완료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전에 너희의 죄짐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내 가장 큰 내 사랑도 너희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왜냐면 사랑이 정의를 없앨 수 없고, 죄짐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하고 죄에 대한 속죄를 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지은 피조물이 비록 영원에 영원한 시간이 걸릴지라도 속죄를 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 사랑 자신이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는 구원역사를 완성하면서 인류의 죄를 해결했다.

내 사랑 자신이 구원역사를 완성했고 한 사람 안에서 육신을 입었다. 한 사람이 내가 육신을 입는 일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면 그의 나를 향한 사랑과 그의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주 강해서 이웃을 위해 고통받고 죽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영원한 사랑인 나 자신이 그 안에 즉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인간 예수는 자신의 형제들의 큰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

다.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고 나중에도 결코 능가할 수 없는 단 한번의 구속 역사였다. 왜냐면 죄의 크기가 측량할 수 없게 컸고 이런 죄짐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다.

비록 예수의 겉형체는 인간이었지만 예수의 혼은 위로부터 왔다. 이를 통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혼이 어두움의 나라에서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한 형제들을 위해 고통받기를 원했고 이런 희생을 감당했다. 왜냐면 그 안의 사랑이 희생하기를 원했고 사랑이 표현하기를 원하면, 내가 절대로 막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내 원래의 요소이고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 거했고 인류를 위해 나를 희생했다.

이런 공훈의 역사는 너무 강력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너희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언젠가 영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압도되어 찬양과 감사를 부르게 될 것이다. 모든 성숙한 혼은 영의 나라에서 이런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내가 인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과정을 간 일이 어떤 사랑과 은혜의 역사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제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사람들과 나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빛이 없는 나라에서 빛과 축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렸고 내 나라의 나에게 도달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길을 갈 수 있었고 또한 갈 수 있다. 이 길은 예수가 앞서 갔던 길이었고 나와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 너희 모두가 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다. 그러므로 죄짐이 해결되었고 구속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성취되었다. 최종적인 목표인 나와 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진지하게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고 자신의 피로 모든 혼을 구매하기 위한 대가를 치렀다.

모든 구원받은 혼들은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속 역사는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예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 사랑이 이런 공훈의 역사로 만족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사람 자신이 이제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일이 헛된 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구원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는 절대로 나와 연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하여 자신의 큰 죄짐을 지게 되고 그에게 빛의 나라의 문이 닫혀 있게 된다.

(1960년 7월 17일) 현재의 너희 사람들은 나 자신이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적이고 모든 영원에 영원까지 일회적으로 머물게 될 큰 공훈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임한 구원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속 역사의 은혜를 활용할 수 있고 너희가 아직 구속받지 못했다면, 즉 너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왜냐면 종말이 오기 까지 아직 짧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아야만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안의 나를 깨닫는 일 외에는 너희를 위한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구원은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을 가지 않은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너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전 세계에 더욱 큰 열심으로 전해 진다.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것이고 그를 믿고 이런 믿음으로 그에게 자신을 드리는 모든 사람은 진실로 그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록 그가 세상의 종말 전에 이 땅의 생명을 잃게 될지라도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한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는 단 일회적인 역사이고 이와 같은 역사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을 너희에게 말해줘야 한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희생했고 내 사랑의 역사는 진실로 그 효력이 커서 인류의 죄가 아무리 아주 컸고 클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다는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 자신이 구원받기를 원해야만 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뜻과 반대로 내 구원 사역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의 죄도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두지 않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과 나를 믿지 않고 영적인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을 돕기 원하는 아주 큰 내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파문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도록 놔둬야만 한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의 길이 그들의 목표에 확실하게 도달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고 그들이 이런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때 그들이 맞이할 상태를 정하게 된다.

종말의 때와 시간은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고 종말을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왜냐면 이 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종말을 알려줄 수 있고 너희가 아주 열심히 혼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경고할 수 있다. 혼에 대한 작업은 사랑을 행하는 일을 증가시키는 일이다. 그러면 너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구원주요 구세주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헛되게 드러진 것이 되지 않게 하라.

B.D. No. 6938

1957년 10월 7일

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희 사람들에게 헛되게 될 수 있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에 영향을 받지 못한 너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를 단지 인간 예수로 깨닫고 그러나 그의 신적인 영적인 사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

로써 구속사역의 완성의 효과를 누리는 사람들의 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희생 제사는 헛되게 드러진 제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구속사역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너희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에게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 달려있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묶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빛과 능력을 가지고 자유를 기뻐할 수 없고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묶임을 받은 상태로 머문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자유가 없고 능력이 없고 빛이 없는 상태를 골고다를 향한 길을 통하지 않는 다른 길을 통해 절대로 바꿀 수 없음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의 역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유일하게 그만이 너희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축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거하게 될지 정하는데 결정적이다.

너희는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주 축복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을 줄 수 있는 분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기간은 길지 않다. 그러면 너희는 비로소 너희의 묶인 상태의 고통을 의식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굳은 물질 안으로 묶임을 받고 이런 고통스러운 묶임을 받은 상태를 느껴야만 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으로써 소유했던 삶의 능력을 빼앗긴다.

그러나 너희에게 자신을 의식하는 의식이 남아 있으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이 땅에서 또는 너희가 극심한 어두움의 영접을 받지 않으면, 저세상에서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가능성이 아직 항상 있다. 그러므로 내 사랑은 너희 생각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 안에서 육신을 입은 분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눈앞에 볼 수 있게 한다. 나는 항상 또 다시 그의 구속사역이 거론하게 돌볼 것이고 전적으로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적게 또는 전혀 의미를 두지 않는 너희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전해지게 돌볼 것이다.

너희 모두는 언젠가 그에 대한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다. 너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에 대해 자신에게 전해진 내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지에 따라 그에 대한 자세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자세를 갖는지에 따라 끝없는 기간이나 또는 영원한 기간 동안을 정한다.

왜냐면 그가 실제 끝 없이 긴 기간 동안 아직 고통스러운 묶인 상태로 머물러야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러나 그는 실제 영원히 자유롭고 빛과 능력과 축복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에게 자신의 자유를 구매한 그에게 다시 그가 축복되었던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게 해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역사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이 결정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의 운명을 준비한다. 그러나 내 사랑이 쉬지 않고 그를 도와 그가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한다. 내 사랑은 그에게 항상 또 다시 지식을 제공한다. 이로써 어떤 사람도 그가 구속받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내 사랑이 너희의 의지를 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축복되지 못한 상태를 선택했고 너희는 다시 자유의지로 축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추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기 위해 먼저 너희의 자유의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세상이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유가 없이 연약함 속에 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구속사역은 모든 사람을 위해 드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가 비로소 구속사역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너희가 자유롭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분을 고백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을 인정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도 죽었기를 원하면, 너희는 진실로 묶인 상태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빛과 능력 가운데 제한이 없이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B.D. No. 6579

1956년 6월 25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이 얼마나 말할 수 없게 중요한 지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갖게 권면해야 할 불가피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 증명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직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아직 나와 가까운 연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이 깨우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한 때 나를 떠난 죄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 있고 이 죄가 그들을 내 대적자에게 묶이게 만든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한때 나를 떠난 죄를 알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의식하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가르침이 알려지면,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서 한 말을 깨달으면, 그들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이 단지 진지하게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받기 원했다면, 그들은 확실하게 설명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들을 더 이상 이 생각을 떠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단 한 가지의 길 만이 있다. 왜냐면 내 영접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로 죄를 지은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없이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없다. 이는 내 끝이 없는 사랑도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하나님을 실제 인정하지만 그러나 단지 말씀이나 또는 표면적인 생각으로 인정하는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심장 안에서 하나

님 앞에 전적인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진지한 생각이 느낌을 통해 그가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서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말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는 단지 한 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랑이 그의 영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선행 조건으로 하는 나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그의 영적인 관점을 날카롭게 해주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질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사랑이 그가 오류가 있는 주장을 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어떠한 접촉도 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생각을 하면, 그들은 작은 불쾌감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죽음이 알려지지 않게 되지 않을 것이다. (1956년 6월 25일) 그는 항상 또 다시 자신의 이웃들과 대화를 하게 되거나 또는 이웃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항상 또 다시 이 땅에 거했고 고통이 총만한 죽음을 당한 인간 예수를 생각하게 그의 생각을 인도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수의 이 땅의 삶을 알고 나 자신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나를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진 사랑의 정도에 따라 영접하거나 거부할 것이다.

나 자신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사람에게 개입하고 그의 저항은 항상 줄어들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가 아직 전적으로 거부하는 자세를 가졌던 초기와는 다른 전혀 다른 빛으로 인간 예수가 그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가르칠 수 없게 되면, 너희의 의지는 죽음의 시간에 아직 대적하는 자세를 가진다. 그러면 그는 영의 나라에서 어떠한 축복도 기대할 수 없고 그는 그의 올바른 삶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거하는 영역으로 영접받을 수 있다. 왜냐면 그는 이 땅에서 자신을 구속하게 허용하지 않았고 그가 묶임을 받은 가운데 영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영의 나라에서 아직 자신의 하나님의 구세주인 구원자를 찾을 수 있다. 내가 영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를 거부했던 모든 존재들을 만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고 내가 구세주로서 나에게 향하는 모든 부름을 듣고 이제 부르는 자의 손을 잡고 그들의 영역으로부터 내 신적인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내가 베푸는 아주 큰 은혜이다. 왜냐면 내가 인정을 받고 혼이 단지 이 땅에서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나는 아직 깊은 곳에 있는 혼을 다시 데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혼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빛의 나라의 문은 모든 혼에게 닫혀 있다. 그럴지라도 문을 열어주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속자로 인정하는 일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인간 예수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 왜냐면 나 자신이 인간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말했고 인간 예수 안의 나 자신이 인정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 예수는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내 걸형체로서 나를 섬겼다. 그러나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영이고 영으로써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볼 수 없었던 내가 영의 나라의 모든 내 피조물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영의 나라에서 이 걸형체를 유지했다.

너희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나는 한 형체를 택했고 이 형체 안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자신이 거한 형체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미 영원한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향하는 올바른 길을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영원히 나에게 도달할 수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 대적자가 너희를 자유롭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통해 아직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아멘